

희망플러스 · 꿈나래통장  
참가자 수기집

2014  
희망과  
꿈을 키워요



서울시복지재단  
Seoul Welfare Foundation

희망플러스

희망플러스, 삶에 희망과 행복을 더하다. / 김옥숙	6
우리에게 찾아온 희망 더하기 / 박윤관	8
희망으로 매일 행복한 내 모습 / 이정희	11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 김현구	14
내 삶의 활력과 자부심을 준 통장 / 이은섭	16
희망의 꽃이 피었습니다. / 김영순	18
판도라 상자에서 꺼내진 희망플러스통장 / 문선	20
잊지 않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실행하겠습니다. / 김용관	23
평생 잊지 못할 희망플러스통장 / 김정민	25
미래를 꿈꾸게 하는 희망플러스 / 김미숙	27
작은 것이 모여 큰 희망으로 / 김정희	29
미래를 준비하게 해준 희망플러스통장 / 김세규	31
미래를 밝히는 희망플러스통장 / 표미라	34
자신감을 선물해 준 통장 / 이혜경	38
비닐하우스에서 벗어나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다 / 정덕주	40
긍정의 에너지 / 한금순	42
우리 가정의 재무책임자 희망플러스통장 / 이춘호	44

꿈나라

기쁨은 함께 나눌수록 배가 된다 / 김경숙	48
내 집의 물꼬를 튼 꿈나라통장 / 이난희	52
더 나은 삶을 꿈꾸는 날개 / 신경민	55
꿈은 꾸는 것이 아니라 이루는 것이다 / 박수영	58
꿈의 날개 '꿈나라통장' / 김수진	62
소중한 작은 변화들 / 연채원	65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준 꿈나라통장 / 황민이	67
태경이네 가족의 꿈을 키워요 / 윤미철	70
기쁨을 선물해 준 꿈나라통장 / 이명옥	73
만남과 기억을 소중히 여기는 꿈나라통장 / 손혜선	76
모진세상에서 세 아이 지킨 통장 / 정경윤	78
재현이의 어깨에 꿈나라를 달고! / 황미자	80
가족애를 되찾아 준 꿈나라통장 / 김태완	82
꿈나라통장사업 참여를 통한 긍정적 변화! / 이해윤	84
꿈나라통장을 회상하며 / 조민식	86
산타클로스가 되어준 꿈나라통장 / 조문빈	88
꿈나라통장을 통해 성장하다 / 조미선	91
반갑다, 친구야. / 차유미	93
행복을 알려준 값진 보석 / 성은자	96
절망 끝에서 만난 한 줄기 희망 / 김미정	98
미래의 작은 디딤돌 / 김동연	100





# 희망플러스

PART • 01

2014  
희망과  
꿈을 키워요



## 희망플러스, 삶에 희망과 행복을 더하다.

### | 희망플러스통장 참가자 김옥숙

이 글을 쓰려고 하니 지난 3년의 시간이 머릿속을 스쳐지나갑니다. 희망플러스 초기에는 다소 무리였지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저축의 용도는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전세자금 마련이었습니다.

한 부모 가장으로 열심히 일하며 생활해왔지만 저축을 시작한지 일 년쯤 되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기존 수입에서 2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저축하다 보니 생활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수입은 줄고 병원비 지출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저축을 포기하고 쉬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기엔 아깝다', '이건 내 욕심일까?'라는 갈등 속에서 제가 선택한 건 3개월의 유예신청이었습니다. 저축을 하면서 생활을 유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출을 줄이고,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저축습관이란 이런 거구나' 깨닫게 되었지만 유예를 한 번 더 하고나서야 저축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유예기간에 직업을 바꾸게 되면서 새로운 도전과 선택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에 제게 활력을 불어넣어 준 것은 2012년

지역자조모임이었습니다. '희망플러스가 돈만 불입했다면 어땠을까요?' 생각의 힘을 깨워주는 금융교육과 생활에 생기를 주는 자조모임이 있었기에 '희망플러스'라고 생각합니다. 10년 동안 가족 여행뿐만 아니라 단풍 구경조차 하지 못한 저에게 자조 모임은 안식의 기회와 행복의 기쁨을 주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림살이는 팍팍합니다. 그동안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도 저축 금액보다 더 올랐습니다. 유예신청으로 처음 계획한 저축 금액보다는 줄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저축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희망플러스 통장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끼고 줄이는 저축습관, 아픔과 좌절, 가족애, 새로운 일과 도전! 이것은 고통이라기보다는 제 삶에 도움이 되는 노력이었고, 그래서 힘들어도 더 나은 삶을 향해 가려합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역경으로 좌절하지 않고 이겨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와 복지재단, 여러모로 애써주신 복지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더 나은 복지로 대한민국 국민모두가 행복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합니다.



## 우리에게 찾아온 희망 더하기

### | 희망플러스통장 참가자 박윤관

중3. 중2. 초5학년... 현재 중학생인 두 딸과 아들 하나를 둔 다복한 우리 가족은 우연동에 소재한 장기전세 시프트아파트 25평형에 입주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주거환경에 입주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은 바로 정부에서 주관한 희망플러스통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3년 전 우리 가족의 경제상황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우리 부부는 신림동으로 이사 오기 전 남편의 사업실패로 파산면책을 받아 빚은 없었지만 보증금 300만원이 전부였고, 8년이나 기거한 집의 월세는 점점 올라가 월 40만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학습지 교사였던 남편의 수입으로 월세, 공과금, 생활비, 교육비 등의 많은 지출을 감당해야했기에 우리에게 저축은 말 그대로 꿈도 꿀 수 없는 먼 얘기였습니다. 당시 남편은 파산면책자로 안정된 직장을 찾기 어려웠고, 그나마 근무하던 학습지 회사도 배정받은 지역이 재계발단지라 수업 받는 학생 수가 줄어 급여는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부

부의 수입으로는 한 달 한 달 버티기도 어려웠지만 급기야 생활비가 부족해 조금씩 빚이 생길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사무소에서 임시직으로 근로를 하던 지인이 희망플러스통장이라는 좋은 프로젝트가 있다며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들어보니 말 그대로 희망일수밖에 없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당장 힘들어도 우리가 저축할 수 있는 길은 희망플러스통장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형편이 나아지길 기다리며 자력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지난 세월이 가르쳐줬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동사무소로 달려가 이왕이면 혜택이 큰 월 20만원씩 3년 저축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좋은 적금도 겨우 한 달 넣고 남편이 직장을 옮기는 바람에 수입의 공백으로 6개월 일시중지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을 내서 다시 적금을 납입했습니다. 여유가 생겨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 적금을 유지해야 힘든 생활에 위로가 되고 조금이나마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공과금은 밀려도 적금을 먼저 납입할 정도로 희망플러스통장은 우리의 작은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한 달 우리가 통장에 돈을 넣고 같은 금액의 돈이 통장에 찍히는 것을 확인할 때마다 '이런 혜택이 정말인가?' 신기하기도 하고 보람이 되기도 해서 그 힘으로 우리는 3년이란 긴 시간을 열심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보험 상담사'로 이직하면서 수입이 늘어 따로 월 50만원을 더 저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 년을 더 저축해서 우리는 희망플러스



PART • 01

## 희망으로 매일 행복한 내 모습

| 희망플러스통장 참가자 이정희

통장 만기금액 1,250만원과 추가 저축을 포함해 드디어 2,000만원이란 금액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정은 다자녀 혜택으로 장기전세 아파트 신청 자격은 되지만 전세계약금 10%가 없어서 엄두조차 내지 못했는데 희망플러스통장 적금을 통해 드디어 그 계약금이 마련된 것입니다. 적금 만기가 되던 해 우리는 그 희망의 결실을 가슴에 품고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장기전세아파트에 당첨되었고 감사하게도 지난 2013년 3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행운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 감격은 그야말로 꿈만 같습니다. 나날이 커가는 아이들의 때문에 당시 살던 공간이 좁게 느껴졌고, 더구나 딸 둘이 기거하던 방은 누우면 문에 발이 채어 생각 없이 문을 열다간 다치는 일이 종종 일어나 속상했습니다. 이사비용과 월세가 부담되어 이사하지 못했던 우리 가족에게 아파트 당첨 소식은 마치 우리를 위해 준비된 행운같이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결과를 이루기까지 그 초석이 되어 준 희망플러스 저축은 하루를 견뎌내기 바쁘고 미래가 암담했던 우리 가족에게 너무나 고마운 기회이고 혜택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지금도 말합니다. 희망플러스는 말 그대로 희망을 선물해주는 훌륭한 기회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좋은 시스템을 도입하여 어려운 가정에 힘을 주는 모든 기관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하다고... 모두 복 많이 받으시라고... 지금 우리 다섯 가족이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더 큰 꿈을 그리며 살아갈 원동력이 된 희망플러스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희망플러스 고마워!!!



별써 희망플러스통장의 만기 적금을 수령한지도 2년이 되어 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절실했던 그 마음도 흐려지기에 저는 오늘도 자신을 한 번 돌아보며 이 글을 적어봅니다. 처음 통장에 가입할 때처럼 지금도 늘 생활이 바쁘고 여유가 없지만 미래의 멋진 삶의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오늘도 다양한 색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2012년 10월 말, 희망플러스통장 적금을 수령했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많은 역경이 있었기에 그만큼 저에게는 가치 있는 통장이었습니다. 적금을 받은 날 행복과 그 기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 잠을 설쳤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제게 희망플러스통장이 더욱 소중한 이유는 첫 통장이기 때문입니다. 신청서에 저축 금액 10만원을 썼더니 면접관님께서 '왜 20만원씩 적립하면 더 큰 돈을 모아 목돈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저는 한마디로 '제 형편에 맞는 금액입니다. 현재 저 혼자 벌어서 생활하기 때문에 적금을 넣을 수 없는 상황이 오면 현재 10만원으로 누리는 기쁨도

없어집니다.”라고 말했다니 면접관님이 고개를 끄덕이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의 미저축도 없이 800만원 남짓 되는 돈을 기쁜 마음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희망플러스통장 합격통지서를 받은 그 기쁨을 느낀 순간 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웅크리고 지내던 과거의 행동을 버리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에 참여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희망플러스 카페에 재무교육, 다양한 연극이나 음악회에 참석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객석 나눔, 숲 체험, 예술로희망드림 프로젝트 등 원하는 프로그램이 나올 때 마다 지원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기회를 제공받으면서 소극적이던 제가 긍정적인 성격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린이집을 개원하려는 용기와 의지가 생겼고 개원하여 지금은 5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린이집의 전세계약이 만기되어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 또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 10월에 희망플러스통장 만기적금을 받아 해결할 수 있었기에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지금은 생활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자는 현명하다'라는 명언을 떠올리면서 이번 3월에는 이율이 낮은 다른 은행으로 대출금을 갈아타서 이자도 반으로 줄었습니다. 무일푼으로 시작한 제 사업에서는 엄청난 결과입니다. 나의 작은 행동으로 어린이집 개원 시 받았던 대출금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 삶의 변화의 원동력은 바로 희망플러스통장이며, 특히 재무교육, 객석 나눔, 예술로희망드림 등은 어려운 마음을 추스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이 상처 받지 않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데 힘이 되주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여전히 통장을 시작할 때의 마음으로 성실하게 제 역할에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의 시선보다는 자신이 만족

하는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은 대출금도 조금씩 갚다보면 어느 날 제가 어린이집 주인이 되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희망플러스통장의 고마움을 늘 가슴속에 새기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열심히 살 것입니다.

나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린이집에 오는 맞벌이 부모가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맞춤보육을 지원하는 어린이집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서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은 있지만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기쁨을 전달하는 일하기에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영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희망플러스통장의 행복을 많은 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함께 했던 희망플러스통장 회원들과도 진심으로 행복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 | 희망플러스통장 참가자 김현구

저는 봉제공장을 운영하며 3남 1녀를 둔 가장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고 선하게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공장을 운영하면서 중소기업과 케이블방송에 물건을 납품을 하던 중 클레임으로 부도가 나면서 공장과 가정을 동시에 잃게 되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술로 방황하며 불안과 공포로 결국은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오랜 지병인 당뇨와 고혈압 때문에 제 몸은 엉망진창이 되었고 오로지 죽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건강은 아주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북궁 지하철역사에 붙어있던 다산콜 120포스터를 보고 상담을 받아 '다시서기센터'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접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여, 다시 '길가온혜명'이라는 곳을 소개받아 옮겼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스리기 위하여 의무소에서 당뇨와 고혈압 치료를 받고 몸을 추스른 후 경비로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면담 시 망설였지만 노숙자란 신분과 제 사정을 설명했고, 시간이 지나니 마음이 편해지면서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는 경비가 되었습니다.

월급의 대부분을 저축하고 있던 중 상담을 통해 희망플러스통장을 알게 되었고 지금보다 더 많이 저축해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희망플러스 대상자가 되면 전세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노력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좋은 소식을 기다리던 중 사회복지사로부터 대상자가 되었으니 서류를 준비하자는 말을 듣게 되어 정말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희망플러스통장 대상자가 되었고 금융교육과 부동산(주택)교육도 받으며 주택에 대한 애착도 생겼고 열심히 하면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겠다는 희망도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보건소 체력 검사에서 '선수형'이라는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저축을 하고 더불어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저는 다시 생각합니다. 주위에는 저 혼자가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나 같이 한다는 자체는 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지금에 와서 절실히 느낍니다. 그리고 희망플러스통장을 통해 얼마 후에는 시설을 나가 가족들과 함께 살게 될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점점 더 행복해질 미래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울증에서 벗어나 술을 끊고 언젠가는 잃어버린 공장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도 가져봅니다. 이러한 생각만으로도 설레는 매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 내 삶의 활력과 자부심을 준 통장

### | 희망플러스통장 참가자 이은섭

2006년 아들이 9살이 된 해에 저는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지금 아들 동규는 17세가 됐습니다. 남편은 사업실패로 재산을 다 날리고 심장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저는 떠난 남편도 안타까웠지만 어린나이에 아빠를 잃은 아들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불쌍해서 통곡하고 또 통곡했습니다. 가진 재산 하나 없이 어린 것을 혼자 키워야 했기에 막막하고 난감했습니다. 월세 단칸방 생활과 직장 생활을 해야만 했고 또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빠를 잃은 것이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되어 학교에서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해서 늘 아이가 신경이 쓰이고 걱정이 됐습니다.

희망 없는 고된 나날이 지속되는 삶을 이어가고 있을 때 우연히 동사무소에 갔다가 희망플러스통장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을 보태주는 적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금을 들 형편은 아니지만 조금 참고 인내하면 단칸방 신세는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청에 서류를

접수하고 두 달 뒤 면접을 보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방세를 내면서 통장을 유지하는 게 너무도 빠듯했습니다. 월급이 120만원 안팎이다 보니 절약하며 살아도 아이에게 학원 한번 보내주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성적이 밑바닥을 맴돌았지만 어쩔 수 없어 건강하게 자라주기만을 바랐습니다.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피아노를 사달라는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쳐 본적 없는데 웬 피아노 타령이냐”고 했습니다. 그러데 어느 날, 중학교 음악선생님께서 동규가 피아노에 재능이 있는 것 같으니 엄마가 관심을 가지고 학원에 보내는 것이 어떻겠냐는 전화가 왔습니다. 저의 형편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아이가 피아노를 사달라고 졸라 할 수 없이 카드할부로 전자피아노를 사줬습니다. 아이는 피아노를 배우지 못해서 혼자 연습을 했는데, 제가 듣기에도 재능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주변에 아동복지관을 수소문했지만 마땅한 곳이 없어 고민하고 있던 중에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예술로희망드림 신청’이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소속된 복지관에 문의했더니 재능은 있는데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게 예술교육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뿔 듯이 반갑고 기뻐했습니다. 오디션을 보라는 연락을 받고 음감이 남다르게 타고난 탓인지 악보도 볼 줄 모르는 아이가 평소에 듣던 클래식 곡을 한 달 남짓 연습하여 꿈나무육성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는 훌륭한 선생님께 레슨을 받으며 꿈을 키우고 있어 어두운 저의 마음에 활기와 자부심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저희 가정에 희망이 생기고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과 문화재단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은혜를 깊이 새기고 열심히 살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 모자에게 햇살 같은 희망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희망의 꽃이 피었습니다.

### | 희망플러스통장 참가자 김영순

장기전세 아파트 대기자 54번! 명단을 확인하고는 내심 포기하고 있었는데, 추가로 선정되었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간절히 원했던 아파트 당첨 소식은 우리가족에게 축복이 내린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딸들에게 “엄마가 가볼 시간이 없으니 너희들이 먼저 보고와”라고 했더니 이사 갈 것이 아니면 아예 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전에도 견본주택을 보기만 하고 돈 때문에 계약을 포기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내심, 집 구경을 하고 이사를 못하게 될까봐 하는 말이었는데, 저도 모르게 “거기 우리 집이야. 가서 보고 와도 돼”라고 했습니다.

아파트를 보고 온 두 딸은 보통 아파트와 달리 작은 마을 같으며 좋은 점을 한 가지라도 더 말하고 싶어 안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싶지 않아 오빠에게 돈을 빌려 계약을 마쳤고, 나머지 전세금은 희망플러스통장 만기적립금을 신청하고 부족한 금액을 해결하기 위해 주거예 은행을 찾아갔

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인 저희에게 무성의한 은행직원의 태도는 딸과 저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습니다. 또 다른 은행과 희망플러스통장을 가입했던 은행도 찾아갔으나 여전히 많은 금액이 부족했습니다.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니 저보다 아이들이 더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파트 근처은행은 더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은행직원의 말이 생각나 통화를 했더니 ‘직접 오셔서 상담을 하자는 말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오랜 시간을 상담한 끝에 필요한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행에서 나오면서 딸아이와 저는 이사를 갈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좋아서 펄펄 울었습니다.

온갖 곰팡이들과 같이 살았던 집, 주인집 배관이 터져 수해를 입었던 집, 겨울이면 패딩 옷을 집안에서 입을 정도로 추웠던 집, 집이 좁아 부딪쳐서 팔 다리에 멍드는 집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다보니 예쁜 집은 상상 속에만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침마다 산이 보이는 창문을 열고 숲에서 나오는 좋은 냄새를 맡으며 행복을 느낍니다. 또한 이곳으로 이사 온 후 두 딸과 제가 취업하게 되어 기초생활수급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생활비를 아껴 급여의 40%로 대출금을 갚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9년 희망플러스통장에 가입할 때만해도 막연했던 주거마련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비빌 언덕이 돼 주었던 희망플러스통장은 저희가족의 마음에 희망의 꽃을 피우게 해주었습니다. 희망플러스통장이 결실을 맺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기다림을 잘 이겨낸 저희 가족에게 격려와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 판도라 상자에서 꺼낸 희망플러스통장

### | 희망플러스통장 참가자 문선

어머님의 치매와 남편의 가난도 모르고 시집왔어도 어머님이 소천하실 때까지 잘 봉양했고 가난한 조카를 데려다 10년을 돌본 것도 나의 선택이니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에게 배신당해 아무것도 없이 길바닥에 쫓겨날 때는 도올 이가 없어진 세상을 원망하며 많이 울었습니다. 더 이상 사는 것이 힘들어 돌아가신 친정엄마에게 저 좀 빨리 데려가 달라고 울부짖으며 잠들기 일쑤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낳은 아이들이 있었지만 변화가 없는 생활을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고단한 마음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몸이 축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사회복지사님의 도움을 받아 작은 집을 얻어 생활할 수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마음과 어쩌해야 미래를 꿈꿀 수 있는지 알 수 없어 그저 묵묵히 하루를 견디며 살았습니다.

제가 일하는 도시락 매장은 모두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일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직장 선배들은 여유와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비결을

문자 저금을 하고 있어서 일이 덜 힘들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적은 월급으로 어떻게 저금이 가능한지 물으며 저금하는 선배들에게 대단하고 부럽다고 했습니다. 통장을 만들고 저축을 해보리라 굳게 마음을 먹지만 당장 수중에 필요한 돈이 없으니 해지하기 일쑤였습니다. 고집스럽게 버티다가도 결국은 해지해야 생활이 가능하니 저금은 불가능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선배들은 일하다보면 좋은 기회가 올 것이라며 격려해주었지만 저에게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처음 희망플러스통장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 정말 좋은 기회지만 유지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통장을 신청하고 면접에서 최선을 다해 유지해보겠노라 대답하면서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생각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면접 당시 긴장과 절박함에 울컥 눈물이 쏟아졌던 기억도 납니다. 그 때는 왜 그렇게 눈물이 시도 때도 없이 많이 나왔었는지……. 아이들 용돈까지 살림에 보태다보니 아이들은 저금에 대한 흥미를 잃었고 앞으로 공부하기에도 어려운 형편이 아니냐며 의기소침해 했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는 엄마라는 것이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통장에 1회분 납입액이 찍힌 통장을 받았을 때 저는 꿈나래통장을 어떻게든 유지해서 아이들에게 믿을 수 있는 엄마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또 결심했습니다.

금융교육을 받으면서 그동안 왜 저금에 실패했는지, 나에게 어떤 예금이 적당한지, 불필요한 보험은 무엇인지, 비상금을 모으는 요령은 무엇인지 등을 배우면서 차츰 저금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고, 예산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 잊지 않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실행하겠습니다.

| 희망플러스통장 참가자 김용관

만약 의지만으로 저금하려고 했다면 얼마나 어려운지를 느끼며 또 좌절했을 것입니다. 저금을 목표로 노력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육을 받으며 그동안 내 자신이 얼마나 돈에 대해 무지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여유가 없는 생활이지만 희망플러스통장에 꾸준히 저금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이들 마음에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판도라의 상자에서 가장 늦게 꺼낸 희망은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제게는 희망플러스통장이 그러한 것입니다.

아직 통장에 저금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희망플러스통장이 우리 가족에게 희망을 더하며 미래를 든든하게 해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비록 적은 돈이지만 아이들과 저에게는 내일로 가는 든든한 동아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플러스통장에 앞으로도 우리의 희망이 차곡차곡 적립되기를 희망합니다.

안녕하세요. 2009년 희망플러스통장 참가자 김용관입니다. 유난히 따스했던 봄날, 희망플러스 참가자가 되어 뿔 듯이 기뻐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낸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인내의 결실인 만기적립금으로 창업을 했고 또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참으로 우수와 같은 세월입니다. 희망플러스 3년 동안 저희 부부가 함께 창업을 위해 열심히 허리띠를 졸라매 적금을 붓고, 금융교육도 받으면서 앞으로 자립할 수 있는 가정이 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희망플러스통장 만기가 되어 갈 즈음에 저는 직장을 퇴사하여 창업교육을 받으면서 집 근처에 가게를 얻었습니다. 직종은 제가 만 6년 동안 근무했던 냉동생선 도매업입니다. 창업자금이 많이 모자라 지인 두 분께 빚을 지고, 창업대출과 냉동탑차의 일부는 할부로 구매하여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거래처도 생각만큼 늘지 않았고 자금회전에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열심히 발로 뛰어 영업하고 자금을 꼼꼼히 관리하자 6개월부터는 거래처가 눈에 띄게 늘어났고 자금회전률도 100%가 되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저희 희망플러스통장 목적자금을 만들어 주신 분들과 창업 시 흔쾌히 도움을 주신 지인들을 생각하며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창업한지 1년이 지났을 때 지인의 빚을 청산했고, 현재는 창업대출금과 자동차할부금 일부가 부채로 남아있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빚을 청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달 전에는 오랜 지층생활을 끝내고 이층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가게는 100곳 이상 거래처를 확보하고 직원 1명을 두고 있으며 가을에는 더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저소득 가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지난해부터 해외 어린이도 후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받았던 도움을 잊지 않고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며 어려운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실천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자립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신 희망플러스통장 관계자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실행하겠습니다.



## 평생 잊지 못할 희망플러스통장

| 희망플러스통장 참가자 김정민

결혼한 지 23년,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 경미한 교통사고가 나고 얼마 되지 않아 휴가를 가던 날 차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 뿐 아니라 초등학교를 들어가자마자 학교 앞에서 또 교통사고로 다리를 많이 다쳤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의 사고였습니다. 아이는 사고로 인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는지 소리를 지르거나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등 예전에는 하지 않던 행동을 보여 아이를 데리고 교육을 다녔지만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정신지체로 진단해주셨습니다.

남편은 직장생활을 하다가 자기 일(액자를 만드는 일)을 해보겠다고 가게를 얻었고 새로운 희망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많아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손님은 점점 줄어 일하는 날보다 노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차라리 그 일을 접고 직장을 잡았으면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았을 것 입니다. 저희도 자그마한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하는 일



이 잘 되지 않자 저 몰래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시작했고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썼습니다. 은행에 갚을 능력이 되지 않자 그나마 있던 집을 남에게 넘겨주어야 했습니다. 아이가 정신지체라는 사실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서 남편마저 저를 힘들게 해서 정신적으로 더욱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아이를 돌보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위해서는 직장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치 않게 길을 가다 벽에 난 광고를 보고 희망플러스통장을 알게 되었고 2차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희망플러스 가입 후 3년 동안 받은 금융교육은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축의 필요성, 재테크 등 왜 저축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금융교육을 통해 저축을 열심히 했던 결과 지하방에서 임대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아파트에 이사 왔을 때 저와 아이에게는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희망플러스통장 만기 때에는 만기적금으로 보증금을 올리면서 월세를 내야하는 부담이 그나마 줄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혜택이 저 뿐 아니라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이 돌아갔으면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아도 희망플러스통장은 저에게 말 그대로 큰 희망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미래를 꿈꾸게 하는 희망플러스

희망플러스통장 참가자 김미숙

5년 전 사업 실패로 인한 자괴감과 상실감 뿐만 아니라 두 아이와 방 한 칸 얻을 돈이 없어 친정에 몸을 위탁해야하는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암울하고 끝이 안 보이는 어두운 터널 안에 갇힌 느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우연히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희망플러스통장을 소식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신청했는데 감사하게도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3년만 열심히 저축하면 우리 세 식구 남 눈치 안보고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싶어 생활이 어렵지만 열심히 저축을 했습니다. 저축하는 동안 서울시에서 금융교육 등 여러 교육을 해주셔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고 담당 복지관 선생님도 친절히 상담해주셔서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두운 터널 안 끝에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별써 3년이 지나 적금만기가 되면서 세 식구가 살 수 있는 집을 구하는데 종자돈이 되었습니다. 이사날짜가 정해지자 설렘과 함께 심난한 마음이 공존했습니



다. 5년 전 서울로 아이들과 이사를 올 때는 두 번 다시 인천으로 돌아오지 않으리라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열심히 생활한 덕분에 기반을 다져 비록 전세지만 우리 식구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이사한 첫 날 살림을 정리해놓고 아이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서울로 이사를 가자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면 꿈을 꾸고 희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은 서울시복지재단 덕분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 잡아주고 포기하지 않도록 이끌어 준 덕분입니다. 저축할 때마다 얼마나 이 날을 기다리고 꿈을 꾸었는지 감사한 마음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요즘은 하루하루가 정말 즐겁습니다. 정말 그 이름처럼 저희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서울시 희망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작은 것이 모여 큰 희망으로

| 희망플러스통장 참가자 김경희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둔 46세 엄마입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학비 걱정과 함께 대학에 가고 싶어 하는 아이의 꿈을 위해 ‘엄마로써 무엇을 해 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3년 전 희망플러스통장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오르는 물가로 생활비가 빠듯해서 저축은 꿈도 못 꾸고 있던 중 희망플러스통장을 통해 매달 5만원씩 저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돈이 모여 큰 목돈이 되어가는 통장을 보면서 알차고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축은 넉넉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 저축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년에 3번 받는 금융교육을 통해 잘 몰랐었던 노후대책연금, 보험, 주택교육 등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알게 되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관심이 많은 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알 수 있었고, 금융교육을 통해 우리집 경제상황에 맞는 집을 구입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저축을 밑바탕으로 미래의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2시간의 교육을



통해 미처 몰랐던 지식과 기존 생각이 바뀌면서 생활태도 뿐만 아니라 가치관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자신 있습니다. 하루하루 작은 것이 모여 큰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희망플러스통장을 통해 배웠습니다. 주위에 꿈이나 계획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희망플러스통장에 신청하여 도전해 보세요.

반드시 앞이 보입니다. 그리고 희망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미래를 준비하게 해준 희망플러스통장

| 희망플러스통장 참가자 김세규

희망플러스통장 3년의 시간들을 마무리하며 소회를 몇 자 적어봅니다. 저는 우연히 어느 지하 주차장 환기구에 갇혀 밝은 유리문 쪽으로 한 마리의 새가 밖으로 나가려고 애쓰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빠져나가지 못해 안간힘을 쓰는 새를 2시간 정도 무심히 지켜보다가 안타까운 마음에 그곳으로 가서 그 새를 잡아 밖으로 날려 보내주었습니다. 새가 멀리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순간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냥 놓아두었다면 그 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 새처럼 갇혀있다면 빠져나갈 길을 생각하였겠지요. 반면 인간은 무서운 다른 길을 생각할 수 있는 생명체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곧 체념이 아닐까요? 체념을 하면 새와 같이 계속 갇혀있는 처지가 될 것입니다.

저는 60대 후반 나이에 정말 우연히 희망플러스통장 제도를 접하고 신청하여 3년의 세월이 흘러 오늘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인간은 맨 몸으로 누구나 불완전하게 태어나 넓은 바다에 조그만 배가 풍랑을 헤쳐 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젊을 때 일찍이 대기업에 몸담아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 보다 안정된 삶을 먼저 시작했지만 안정된 삶은 모든 일에 대한 자신감을 넘어 교만으로 변화였습니다. 영원히 유지될 것 같던 대기업 직장도 부도가 나서 결국 잠시 방황했지만 중견기업에 다시 들어가게 되었고, 정신적으로 다시 안정을 찾고 즐겁게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안정을 찾는 순간 위축되었던 사고는 어느 새 저를 떠났고 교만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제 사업을 하기 위해 십여 년 일했던 직장에서 퇴직하였습니다. 저는 태생적으로 큰 욕심이 있거나 불로의 소득을 기대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대흐름에 민감하지 못한 탓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여 그 시절 사양사업으로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가족들의 원성과 주위사람들의 멸시의 눈초리는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그 때 제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체념입니다. 술 마시고 몽롱한 정신 상태로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방황하고 맨손으로 돌아온 가정은 파탄 직전이었지만 저는 미래에 대한 준비와 목표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극히 단순한 사람이었고, 은행의 적금이나 보험만기를 한 번도 채워보지 못한 무능, 무책임한 인간이었습니다.

현재 자기 자신이 처한 모습은 환경의 영향도 있겠지만 대체로 자신이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벼랑 끝에 있을 때, 절망하고 있을 때 삶의 변곡점이 찾아오고 삶에 기적과 같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절망은 없습니다. 행복과 성공은 삶의 부산물이지만 결국 혼자서 쟁취할 수 있는 경품이 아니라는 어느 작가의 글귀가 생각납니다. 희망플러스통장 면접을 볼 당시 저는 저의 처지를 이야기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쥐꼬리만 한 보수를 받으며 초로의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쥐꼬리가 얼마나 큰 지 희망플러스통장을 통해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은 통장을 통해 긍정적인 의식의 변화를 갖게 된 것이며 이러한 변화에 대한 고마움을 느낍니다. 세태의 변화에 감히 이 나이에 초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뒤늦은 나이에 3년이란 세월을 노력하며 사는 것이 허튼짓이라는 생각도 했지만 지금은 성취감에 만족합니다. 그동안 유명한 경제학자의 강의로 그냥 흘려보냈는데 어느 순간부터 희망플러스통장에서 실시한 금융교육은 가장 기초적인 수준과 원칙임에도 귀 속에 쑥쑥 들어오게 되었고 진지하게 경청할 수 있었습니다. 금융교육 또한 제 모습을 변화시켜 준 의식전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고 계획적인 설계를 하지 않으면 누구든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지금 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자신이 있지만 시간은 저 멀리 가버렸습니다. 희망플러스통장 사업이야말로 과거의 가난을 몰아낸 농촌의 새마을운동처럼 또 하나의 의식을 개혁할 수 있는 좋은 운동으로 승화할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해봅니다. 희망플러스통장은 미래를 준비하는 습관을 안착시켜주고 긍정의 사고를 가지고 목표를 설정할 희망을 주었습니다. '여유가 없어서'라는 생각으로 저는 지금까지 6개월을 넘겨 저축을 유지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무책임하게 살아왔는지 부끄럽습니다. 아울러 저축의 힘은 소비하고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저축 후 소비가 되어야 한다는 평범한 공식을 이제야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가난이라는 굴레를 벗어날 답은 결국 이곳에서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의 생활 속에서 이러한 길을 택하였더라면 현재의 나의 위치는 좌표선 위쪽에 있었을 것입니다. 인생행로에서 너무 늦었다는 아쉬움을 뒤로 하고 오늘 저는 작더라도 적금통장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 미래를 밝히는 희망플러스통장

### | 희망플러스통장 참가자 표미라

희망플러스통장과 만난 지 어느덧 일 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동안 통장 속 적금도 붙어났고 그만큼 저의 금융지식도 훌쩍 자랐습니다. 이것만도 참 좋은 일인데 더욱 기쁜 일은 희망플러스통장 금융교육을 통해 알게 된 SH공사 장기 안심주택에 선정됐다는 것입니다. 희망플러스통장 가입을 시작으로 저의 삶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어 참 행복합니다.

저는 서른을 훌쩍 넘겨 결혼을 했습니다. 중산층이던 저희 집은 어머니의 암 투병을 시작으로 집안사정이 급격히 어려워졌고 시간이 갈수록 그 끝을 알길 없이 나빠졌습니다. 희망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고통의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저에게 결혼은 사치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저의 남편은 저와 생각이 달라서 간소하게라도 결혼식을 치루고 함께 살기를 희망하여 가족들만 모인 조촐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삶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어서 더 나빠지지 않기만을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기도가 소용이 없었는지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

다. 그 당시 저에게 희망적인 미래는 없었고 그저 숨 쉴 틈 없이 답답하고 암담한 생활만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희망플러스통장 사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 집을 갖는 것은 욕심이라 생각하고 그저 월세에서 벗어나 전세로만 갈 수 있다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희망플러스통장에 선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절실히 느껴졌습니다. 사업에 선정되었을 뿐인데 당장 내 집을 갖게 된 것 마냥 기뻐했습니다. '이제 착실히 적금을 넣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월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저에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매월 25일 생활비를 아껴 적금을 넣는 기쁨은 말할 수 없이 컸고 통장을 통해 적금 납입 횟수를 쫓아보는 재미는 그 어떤 유머 프로그램보다 재밌었습니다. 이걸 정말 희망플러스통장 사업에 선정된 사람만 곱씹어 느낄 수 있는 행복이고 즐거움이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삶 속에 꼭 들어차 짜증나고 우울했던 마음이 희망플러스통장으로 인해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쁨이 이뿐만이었을까요? 아니요. 제게는 행운까지 함께 했습니다. 사업 선정 후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금융교육에 참석하기 전에는 그저 시간만 때우면 되는 어느 금융정보 전달을 위한 프로그램과 같이 형식적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참 멋지게 빛나갔습니다. 한 회, 한 회 교육을 받을수록 돈에 대해 무지했던 과거의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었고 그 무지함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을 맞이하게 됐음을 일깨워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금융교육에 참여하기 전 저는 쓸데없는 보험에 미혹되었고, 금융상품 수수료를 가볍게 보았습니다. 대책 없는 소비는 말할 필요도 없었던 때라 저의 생활은 나아질 기

미가 보이지 않았고 신세타령만 계속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금융교육을 통해 필요한 만큼의 보험료를 지출하고 수수료가 무료인 금융상품을 활용해 생활비를 아끼고 아낀 만큼 저축하여 또 다른 적금을 늘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쓸데없는 지출이 줄어든 만큼 수입이 변하지 않아도 저축이 늘어났고 가게 경제가 튼튼해졌습니다. 더불어 침묵과 다툼의 소리만 가득했던 집안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 웃음꽃이 행운의 꿀벌을 유인했던 것일까요? 꿀벌이 옮겨준 꽃가루인 금융교육을 통해 알게 된 SH공사의 장기안심주택 정보가 열매를 맺듯 장기안심주택에 선정되었습니다. 희망플러스통장이 만기가 되면 이룰 수 있을 것 같았던 전세의 꿈이 몇 년이나 앞당겨지게 되었으니 어찌 행운이 아닐 수 있을까요? 전세금의 30%를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받아 전세를 얻어 계약이 성사되던 그 순간 저는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실 속에서만 간혀 살던 저에게 미래는 두려움이 아닌 희망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에 희망플러스통장이 자리하고 있었음을 지금 이 순간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빛 독촉과 잦은 연체로 인해 몸도 마음도 피폐했던 일 년여 전. 희망플러스통장을 만나기 딱 그만큼의 시간 전에는 희망과 미래가 없었고 슬픔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힘들었던 시간은 지나간 과거이며 잊혀져가는 기억입니다. 저는 밝은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 희망의 불빛을 들고 현재를 성실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그 어려움은 저를 성장시켜 줄 원동력이 될 것이기에 어려움을 기꺼이 맞이할 여유와 배짱이 있습니다. 요즘 참 고요하고 잔잔하게 행복합니다. 이 행복을 다시금 맞이할 수 있게 해 준 희망플러스통장이 참 고맙습니다. 이 행복과 고마움 잊지 않고 적금을 만기하는 그날까지 지금처럼 조용히 걸어갈 것입니다.

참, 저의 행복에 플러스 된 일이 또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출산을 포기했던 제가 희망플러스통장을 시작하고 얼마 있지 않아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생활비를 아껴 좋은 금융상품에 적금을 넣으면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뱃속에 있는 딸이 제가 살던 곳보다 훨씬 좋은 조건의 전셋집에서 저와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해봅니다. 어떤 다른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은 저의 딸이 아닐까 합니다. 이렇게 예쁜 딸과 만날 수 있게 해 준 희망플러스통장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이들이 희망을 밝히는 불빛인 희망플러스통장을 만나 더 행복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받은 이 행복이 더 멀리, 더 많이 전파되길 기도하는 것으로 희망플러스통장에 보답하는 것이라면 너무 작을까요? 그럼 기도와 더불어 입소문도 내겠습니다. 이렇게요. “도전하세요, 희망플러스통장”



## 자신감을 선물해 준 통장

### | 희망플러스통장 참가자 이해경

저는 28세 때 아들 셋을 데리고 전라도 광주에서 무작정 상경해서 안 해본 일없이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전세방도 얻고 어느 정도 숨을 쉬고 살겠다 싶을 때 노상강도를 만나 머리를 다쳤습니다. 몸이 아파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겨우 얻은 전세방 보증금도 다 잃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양천구 목동에 살았을 그 당시 제 사정을 알게 된 동사무소 직원의 도움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강남구에 위치한 영구임대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다친 데다 우울증까지 겹쳐 콩나물 천원어치도 못 들을 만큼 아파 '다시는 일을 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며 30대에서 50대 초반을 거의 누워서 생활하다시피 했습니다. 다행히 착하고 성실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우리 가족은 생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지금은 아이들 모두 결혼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희망플러스통장 1차, 2차 신청을 알고는 있었지만 경제적으로도 잘 유지할 자신이 없어서 신청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웃의 권유로 신청해보았던

희망플러스통장 3차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며 한 달 급여가 33만원이었는데 저축을 하기 위해 아픈 몸으로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며 지내다 보니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매달 내는 월 임대료가 늘 부담이었는데 저축만기 후, 매칭지원금을 지급받아 임대아파트 전환보증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월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어 주거안정이 되었으며 저에게도 더 많은 자산이 생겼다는 사실에 너무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조금씩 일을 하다 보니 몸도 나아지고 주거 안정이 되다 보니 자신감도 많이 생겼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인 저소득층에게 희망으로 다가오는 희망플러스통장 사업에 더 많이 참여하여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비닐하우스에서 벗어나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다

### | 희망플러스통장 참가자 정덕주

안녕하세요. 저는 희망플러스통장 참가자 정덕주입니다. 저는 비닐하우스 촌에서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까지의 여정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2003년 사업실패로 생활이 급속히 어려워지면서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수정마을 비닐하우스 촌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수도와 전기도 없는 불편한 비닐하우스 촌에서의 생활이 너무나 처량했고 제 스스로 부끄러워 바깥출입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주소지 없이 사는 불편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이 난관을 어떻게든 헤쳐 나가리라고 결심했고 길거리에서 포장마차, 떡볶이 판매 등을 하며 더욱 열심히 살았습니다.

2005년에는 수정마을 대표직을 맡게 되어 마을 주민들과 주소지 찾기 운동을 진행하여 끝내 대법원 판결로 주소지를 부여 받는 쾌거를 이루었고 강남구청에서 수도시설, 전기공사 지원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주택공사로부터 전세자금 7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대출자격도 받았지만 그 당시 제가 살고 있던 곳은 제 삶의

전부여서 쉽사리 이사를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이를 점점 먹어 몸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이사를 가는 것은 생활비 증가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환경을 바꾸는 것은 더욱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구청 복지관에서 희망플러스통장을 소개받았습니다. 2010년 2차에 신청하였으나 비닐하우스에 살고 있는 상태에서 주거지 건물 불량이라는 사유로 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민 동의서와 함께 2010년 3차에 신청하여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3년간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저축을 잘 유지하였고 저축만기가 되어 본인적립금과 매칭지원금으로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제 손으로 보증금을 마련하여 입주를 하니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저와 같은 서민들에게 희망플러스통장은 큰 힘이 되었고 결국에 주거안정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가슴 벅찬 결심을 이뤘습니다. 부디 희망플러스통장 참가자들이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모두 노력하여 저와 같은 행복을 만끽했으면 합니다. 새삼 다시 한 번 행복함을 느끼며 서울시, 구청, 복지관 관계자 여러분께 고마움과 감사함을 전합니다.



## 긍정의 에너지

### | 희망플러스통장 참가자 한금순

아무런 의욕도, 의지도, 희망도 없이 세상과 맞부딪치며 산다는 그 자체로도 두려워 자꾸만 움츠려 들던 시기에 '서울시민과 함께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홍보 게시물을 보았습니다. 순간 '앗! 한 번 악착같이 열심히 살다보면 자립할 수 있는 날도 오겠지'라는 긍정의 에너지를 모아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결혼 21년차의 두 아들의 엄마로 늘 밝고 환한 미소로 생활하는 탓에 주위 분들께 그동안 겪어온 인생 역경의 이야기보따리를 풀어 놓으면 "참으로 힘들었을 텐데"라고 위로해주시며, 내색하지 않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달라고 하십니다. 주위 분들이 해주시는 위로에 감사인사를 드리면 오히려 주위 분들이 더 고맙다고 해주시는 덕분에 어두운 터널에서 빠져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불쏘시개의 원동력은 바로 희망플러스통장이 제게 인생역전 '로또'를 안겨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희망플러스통장 적금으로 월세방 지하에서 지금은 햇살이 가득한 2층 다가구 전세로 이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하방은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 화장실 수채 구멍에서 물이 쿵쿵 뿜어져 곧 넘칠 것 같은 상황이 되기도 했었는데 혼자 있던 아들 녀석이 다급한 마음에 변기에 물을 퍼붓다가 아무리 반복해도 줄어들지 않자 "엄마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러는데 빨리 집으로 와주세요."라며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고 집으로 향하면서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를 원망하며 놀란 큰아들의 모습을 떠올리니 눈물이 나왔습니다. 물이 넘친 이유는 전기모터 스위치 작동이 멈춰 탱크에 찬 빗물을 뿜어 올리지 못해 그런 것이어서 기계를 작동하니 바로 물이 사라졌습니다. 그 날 아들과 새끼손가락을 걸고 희망플러스통장이 만기되는 3년 후에는 꼭 지상으로 이사를 하자고 약속을 했었는데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5월 18일 첫 휴가 나올 아들 녀석은 어떤 집인지 궁금하다며 "엄마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며 애교를 떨어 닭살스럽기는 하지만 이런 게 진짜 행복이 아닐까 생각해보았습니다.

희망플러스통장 덕분에 아들과 약속했던 이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집에서는 좋은 일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변화들 속에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준 서울시에 대단히 감사하며 고마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활기차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 우리 가정의 재무책임자 희망플러스통장

### | 희망플러스통장 참가자 이춘호

세월이 참으로 빨리 흘러 벌써 장기 전세에 입주한 지 5년 7개월이 되어 갑니다. 저희 가족은 7명으로 저의 부부 그리고 장남 고2, 중3, 중1, 초5, 막내인 유치원생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서울시와 재단에서 희망플러스통장이 있다는 것을 듣고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면접하는 날 면접관님이 통장사업의 취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저희 가족은 한 몸이 되어 생활비를 아껴가며 매달 20만원을 희망플러스통장에 저축했습니다. 저축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 때마다 꿈을 갖고 통장을 유지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저희가족은 알뜰한 생활을 위해 계획을 세워 서로 조금씩 양보하였고 아이들도 가정 형편을 알고 잘 따라주어 검소하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 희망플러스통장 지원금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지 떠올리며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급여로 한 달 동안 7인 가족이 생활하려면 정말 집중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곳이 많은지 병원비도 그 중 한 몫을 차지

했습니다. 희망플러스통장 금융교육은 물론 재무컨설팅을 받았을 때 상담사는 더 이상 조언할 말이 없으며 “생활을 너무 잘 하고 있다”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큰 문제없이 공부를 열심히 해 장학금을 받으며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1년 전쯤에 아내에게 빈혈이 생겼습니다. ‘설마 무슨 문제가 있겠나. 조금 있으면 낫겠지. 치료비도 없는데’라고 하며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혈을 심하게 하면서 검사한 결과 직장암 3기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치료도 치료지만 저는 직장에 나가야 했기에 6살 먹은 유치원 다니는 막내를 어떻게 할지 몹시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큰 아이가 유치원 등하교를 맡아줘서 한 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저의 아내는 대수술을 받았고 항암치료 6개월을 무사히 마치고 어제 1년이 지나 검사한 결과 다행히 용종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희망플러스통장 3년을 마치고 만기적금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갚았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은평노인복지관에 근무하시는 이진희 담당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을 항상 염려해주시고 EBS교재도 주시고 안부와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가족 앞으로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꿈나래

PART • 02

2014  
희망과  
꿈을 키워요





## 기쁨은 함께 나눌수록 배가 된다

### | 꿈나래통장 참가자 김경숙

2009년 9월, 꿈나래통장을 손에 들고 7년 뒤 나의 모습을 상상하며 기대에 부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엇그제 입금을 시작했던 것 같은데 벌써 5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간혹 힘들어 멈추고 싶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차곡차곡 쌓이는 저축액을 보며 무슨 일이 있어도 꿈나래통장만은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 생각하며 노력한 결과 만기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광장복지관 선생님을 뵙고 초기면접을 할 때가 생각이 납니다. 첫 만남이 낯설어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몰랐던 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의 권유로 시작한 자조모임 역시 '꼭 이런저런 교육을 받아야 하나'라는 의문을 가진 채 시간만 때우다 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자조모임에서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했던 날은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있지?'라며 혼잣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회기가지날수록 자조식구들과 인생사를 나누면서 모두 처한 상황이 비슷하다는 사실

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가장 힘든 것 같고 제 처지만 우울한 것 같았으나 비슷한 상황에 놓인 자조식구들을 보면서 동료애를 느꼈고, 함께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비오는 꿀꿀한 날이면 번개 텅으로 만나서 시장 좌판에서 파는 칼국수를 먹을 만큼 친해졌습니다. 비록 4천 원짜리지만 그토록 맛있는 이유는 이들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조모임에서 풍선아트, 통장지갑과 카드지갑, 퀼트가방 등을 만들어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각자의 재능기부를 통해 배우는 시간이라서 그런지 더 뜻 깊고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광장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지역소외계층을 돕는 프리마켓을 동참하면서 제가 받았던 사랑을 나누어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프리마켓을 통하여 그동안 배웠던 냅킨아트 쟁반작품, 휴지걸이, 티 박스, 비즈공예, 리본공예로 만든 예쁜 뽀 등을 팔아 기부를 하면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매번 받기만 했던 것이 부끄러워 이제는 베풀고자 프리마켓 자원봉사단 운영위원을 맡았습니다. 두 달에 한번 열리는 프리마켓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숨씨는 없지만, 직접 집에서 장아찌를 만들어 판매해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엔 광장동 지역주민이 찾을 만큼 인기도 많았고 빈대떡과 같이 파니 호응이 더 좋았습니다. 판매 수익금으로 작년 겨울에는 소외된 독거노인을 직접 찾아뵙고 내복을 전해드렸습니다. 어찌나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던지 그 모습을 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사람의 정이 무척이나 그리우신 어르신들께 행사가 있을 때만 찾아볼게 아니라 가끔 안부전화라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문화라는 단어조차 입에 올리기가 어려울 때 선생님이 주신 '총각네 야채가게' 뮤지컬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흥이나 집에 와서도 노래를 흥얼흥얼 거렸습니다. 아이들에게 하나의 추억을 선물해 준 것 같아 기뻐던 기억이 스쳐갑니다. 저 역시 뮤지컬이라는 것을 처음 접했던 것 같습니다. 경험하지 못하면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연극이라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아이들과 한 시간 이상 소요되는 거리도 대중교통도 마다하지 않고 직접 따라 나섭니다. 그 중에서 우리 아이들이 무척이나 좋아했던 농구경기 관람은 박진감이 넘쳐 눈을 땔 수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 쿼터, 한 쿼터가 지나고 선수들이 한 골 한 골 넣을 때마다 들리는 환호성……. 또 치어리더들의 현란한 춤 솜씨와 계속되는 이벤트와 선물들은 관람을 더욱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큰 아들 지훈이는 프리마켓에서 배운 POP로 약간은 어설피지만 “잘한다! SK!” 라는 피켓을 연신 흔들며 대더니 결국 피켓상을 거머쥐어 파이쿠폰을 받아 오기도 했습니다. 또 롤렛 돌리기에서 둘째 아들은 문화상품권에, 셋째 아들은 SK농구공을 상품으로 받았습니다. 꼭 받아서 맛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공개석상에서 선물을 받으니까 정말 좋았습니다. 지금도 지훈이는 농구에 관심을 보이며 경기규칙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기도 하고, 주말엔 친구들과 학교에서 농구를 하기도 합니다. 농구경기관람이 지훈이에게 정말 뿌듯한 경험이 된 듯합니다.

반찬가게가 꿈인 저에게 복지관 선생님은 서울복지재단의 프로그램인 '내 꿈을 펼쳐라'를 추천 해주셔서 서류를 넣었지만 아쉽게 떨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면접 시 서투른 준비와 어설피른 태도가 면접관님 눈에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도전하는 자가 꿈도 얻는 법!' 다음번에 성실히 준비하여 다시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올해는 매년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예술로희망드림 씨앗나눔에 선정되어 지훈이가 미술교육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장남이라 부담이 되었는데 교회에서 실시하는 미술치료 검사결과에서 분노성향이 강하다고 나왔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지원을 받게 되어 정말 행복합니다. 지훈이가 자주 연습장에 연필로 그림을 그리며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아마도 미술교육이 끝나갈 무렵이면 우리 아이가 자신감을 회복하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깨달아 동생이나 친구들을 때리는 행동도 멈춰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처음 꿈나래통장에 가입했을 때에는 나태함과 우울감에 빠져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배움에는 끝이 없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능력을 갖출 때 취업의 길이 열린다.”는 복지사의 말씀에 힘을 얻어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학사학위,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작년에는 방송통신대 청소년교육과 2학년에 편입하여 공부하면서 낮에는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 있게 사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서인지 지훈이의 꿈이 '요리사'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가끔 간단한 요리를 만들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기특한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 아이들이 희망과 꿈을 갖도록 도움을 주시고 꿈나래통장 자조모임을 활성화 시켜주신 황은영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모임의 주인공인 자조회원들께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가족이 자신감을 되찾고 꿈을 꿀 수 있었던 것은 꿈나래통장 덕분입니다.



## 내 집의 물꼬를 튼 꿈나래통장

### | 꿈나래통장 참가자 이난희

2006년 큰 아이의 유치원 졸업을 앞두고, 만성 알코올중독인 남편의 폭력을 피해 어린 세 딸과 집에서 멀리 떨어진 여성폭력쉼터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급히 피하느라 빈 몸으로 번듯한 옷가지 하나 챙겨오지 못해 정말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큰 딸 기숙이의 초등학교 입학준비였습니다. 쉼터에서 급한 것은 해결했지만 서류상 집과 가장이 있어 나라의 혜택을 받기 힘든 사정이었습니다. 저는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파출부로 일하며 생활비와 아이들의 학비를 벌어야만 했습니다. 밤만 되면 남편의 횡포에 떨어야했던 지난날을 다시는 되풀이 할 수 없어 쉼터를 나오면서 아이들을 위해 단호히 이혼을 강행했습니다. 경제적 빈곤은 시작됐지만 마음은 그럭저럭 편안했습니다. 그렇지만 피폐한 결혼생활의 후유증인지 남편과 이혼하자마자 몸이 아파오기 시작했고, 당뇨와 이혼 즈음에 험한 일을 한 까닭인지 급기야 퇴행성관절염이란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젠 약을 먹지 않으면 하루도

지탱하기 힘든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혼 후 아파트는 급매로 팔렸지만 사업 빚을 청산하느라 겨우 손에 넣은 건 천 오백만원이 전부였습니다. 다행히 은행대출로 돈을 더 보태어 우선 살 집을 마련했고, 수급자로 선정되어 그럭저럭 의식주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시로 입원해야 하는 갖가지 질병으로 늘어가는 병원비와 아이들 장래를 생각하면 일하지 못하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갑작스런 생활의 변화와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아이들은 가정 상황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첫째 아이는 담임선생님의 전화가 아니면 준비물조차 말하지 않는 아이가 되어 갔습니다. 순둥이 같은 착한 둘째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사춘기를 겪더니 걸핏하면 '왜 사는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푹푹 내뿜기 시작했고, 막내는 언니들과 엄마의 기분을 살피며 재빠르게 대처하는 애늬은이 같은 면마저 보여 엄마인 나를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부모교육 받고, 아이들을 상담을 받도록 했지만 가정의 분위기는 여전히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침울한 첫째와 툭 쏘아보기만 하는 둘째가 나의 명치를 종일토록 눌러대는 아픈 멍에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헤쳐 나갈까?' 이런 고민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중에 뜻밖의 낭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 학자금 마련을 위해 적금식으로 붓는 꿈나래통장이었습니다. 제가 낸 금액만큼 매칭해주는 정말 행복한 선물이었습니다. 뼈든한 살림에 매달 십 만원을 붓는 건 정말 힘들었지만 한 달, 한 달 저금할 때마다 금액이 눈에 띄게 불어나자 힘든 건 잠시뿐이었습니다. 훗날 이 금액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학자금일 것이라는 사실이 무거운 어깨를 가볍게 했습니다. 올 초 중3, 중2, 초5학년



PART • 02

이 되는 아이들을 조용히 불러놓고 그 앞에 곧 만기되는 꿈나래통장을 내밀었습니다. 큰 아이부터 한명씩 통장을 자세히 살펴보게 했습니다.

“엄마. 이 돈 뭐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큰돈이 있었어요?” 기쁨으로 격앙된 갖가지 질문들이 집안 공기를 상쾌하게 만들었습니다. “얘들아. 이 통장은 너희들이 대학교를 갈 때 긴요하게 쓰일 돈이야. 엄마가 차곡차곡 너희들을 위해 모으고 있던 거야. 이전 안심하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될 거야”

“엄마. 고마워! 그동안 우리가 잘못 했어요...” 그날부터 학교만 다녀오면 잠만 자던 첫째 아이는 참고서를 사달라며 공부하는 다른 아이가 되었습니다. 둘째 아이는 목표가 생겼는지 방과 후 학원을 다니며 시험을 칠 때마다 밤을 지새우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막내는 언니들이 모습을 보고 덩달아 신이 났는지 더욱 열심히 학교 안팎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로 으르렁거리던 집에 웃음꽃이 환하게 피어났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작은 금액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 꿈나래통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아이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었고, 무엇보다 엄마가 자기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에 신이 났는지 걸음마를 떼듯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이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 미용고등학교에 입학할 계획이며, 둘째는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을 졸업한 후 멋진 커리어우먼이 되는 야무진 포부를 갖게 되었습니다. 셋째는 ‘하버드 대학’으로 유학 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평범하지 않지만 불가능한 꿈도 아니기에 ‘언제든 노력하는 자에게 길은 열려있다’는 가훈을 거울삼아 앞으로도 열심히 살기로 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웃음을 찾아준 꿈나래통장을 보며 힘찬 도약을 해 봅니다.

## 더 나은 삶을 꿈꾸는 날개

| 꿈나래통장 참가자 **신경민**

꿈나래통장을 만난 지 5년째 접어들면서 그동안 제게 늘어난 통장의 금액과 함께 얻은 수확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처음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꿈나래통장은 귀를 쫓긋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저금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에서 불입해주고 만기 후에는 아이교육비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학등록금 천만 원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등록금 때문에 진학을 포기하고, 어렵사리 들어간 대학을 졸업하기 위해 채무자가 되는 현실에서 꿈나래통장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저소득 가정에게 이보다 필요하고 좋은 소식은 없었기에 주저하지 않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매달 늘어가는 통장잔고를 보며 만족하고 있던 어느 날, 광장복지관에서 통장 참가자 어머니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자조모임에 참여해보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 즈음 저는 셋째를 임신하고, 둘째도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전이라 참석이 어렵다고 하자 어머니들을 위한 미술치료와 좋은 프로그램이 많으니 나중에라도 기회가 되면 참석하라고 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후 육아와 연이은 출산, 우울증 등

으로 힘이 필요했고 친구가 그리웠던 터라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몹시 아쉬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갑상선암 선고를 받았고, 제가 출산하기 전에 서둘러 수술을 받았습니다.

출산 후 일 년이 지나 여전히 마음이 지친 상황에서 복지관 선생님의 말이 떠올라 자조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처음 모임에 아이 둘을 데리고 나가 비즈공예에 참여했는데 너무 무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막내는 아직 어려서 시설에 맡기기 힘들고 둘째는 불리불안 증세가 있어 가정보육이 불가피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부탁드릴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는 사회활동으로 바쁘신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다자녀가정을 위한 '아이돌보미사업'을 이용하면서 미술치료, 냅킨아트, POP교육 등을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자조모임 식구들과 언니동생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수업이 있는 날이면 각자 준비한 반찬으로 진수성찬을 차려 먹으며 더욱 친해졌습니다. 함께 비벼 먹던 비빔밥 맛은 지금 떠올려도 군침이 돌 정도로 상상 그 이상의 맛이었습니다.

일 년에 한번 진행되는 금융교육을 통해 임대주택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되어 적은 돈이지만 청약에 들었고 마침내 신내동 임대주택에 당첨되었습니다. 5번의 도전 끝에 어렵게 얻은 임대주택 당첨의 기쁨도 잠시 집주인이 천만 원의 계약금을 요구해서 매달 15만원의 이자를 감당해야하는 부담이 생겼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자조모임에서 넋두리를 했는데 한 분이 선뜻 이자 없이 빌려 주겠다는 생각지도 못한 말을 했습니다. 그 분도 세 아이를 키우면서 어렵게 지하방을 보금자리로 얻은 터라 제 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맙던지……. '이들이 이제 가족 이상의 존재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며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자금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을 때 이자 대신 쌀 두포 대를 건네주며 미안함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울러 여러모로 자조모임 식구들을 챙겨주신 통장담당 선생님과 복지관에 보답할 방법을 찾다가 프리마켓 사업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프리마켓은 재능 나눔과 아나바다 성격의 판매활동에서 나오는 10%기부금으로 지역사회가 소외계층을 돕는 나눔에 자조모임 식구들이 핵심멤버가 되었습니다. 프리마켓 장이 서는 날이면 새벽에 일어나 샌드위치를 만들고 자조모임 때 만든 카드지갑이며 쉼트 가방, 냅킨아트 작품들을 팔아 얻은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해도 내가 누군가를 돕는 주체가 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 할 일었는데 벌써 2년째가 되어갑니다. 또한 미술치료를 통해 만난 선생님의 권유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6개월 과정의 수업을 통해 북아트 1급 자격을 취득하면서 광장복지관에 재능기부로 수업을 하고, 중곡복지관에서도 성인 동아리 수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받은 것을 돌려주는 나눔 릴레이로 사회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 같아 흐뭇하기만 합니다. 지금은 단기직이지만 아파트 단지 내 도서관에 취업하여 6개월 동안 새로운 일을 배우며 또 다른 꿈을 꿀 수 있음에 행복합니다.

처음에는 큰 아들의 꿈을 위해 시작한 꿈나래통장을 통해 제 꿈을 이루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들 역시 꿈나래통장의 연계사업인 '씨앗나눔'에 4번의 도전으로 선정 되어 배우고 싶던 미술교육을 체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 중 미술 시간을 가장 기다리며 신나게 수업을 듣는 아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동생들에게도 자상하게 미술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글재주 없는 제가 수기를 쓴 이유는 꿈나래통장 사업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들도 저처럼 더 나은 삶을 꿈꾸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특별히 탁월해서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수확이었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자조모임 식구들의 어려운 부분을 채우시느라 애쓰시는 황은영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 꿈은 꾸는 것이 아니라 이루는 것이다

### | 꿈나래통장 참가자 박수영

2009년 8월, 세 아이를 데리고 연고도 없는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여자 혼자 세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그리 녹록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서울로 이사를 감행한 이유는 아이들이 독립할 때까지 아이들을 철저히 교육하고 양육하기에 타 지방보다 환경이나 제도적으로 더 나은 곳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삼남매가 서울에 적응하는 것이 걱정되었지만 그건 엄마의 기우였습니다. 저의 우려와는 달리 금방 친구들을 사귀고 점점 즐겁게 서울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자활센터에 소속되어 교육을 받고 초등학교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희망에 부풀어 희망플러스통장을 신청하였으나 탈락하고 3개월 뒤 막내아이의 교육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인 꿈나래통장에 선정되었습니다. 적은 급여에서 한 달 10만원을 저축하는 것은 버거웠지만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의 지원, 시중금리보다 높은 이자는 저축동기를 부여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꿈나래'라는 이름처럼

아이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담아 꿈나래통장에 저축했습니다. 꿈나래통장을 시작하기 전에는 인내와 끈기가 부족한 성격이라 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중도해약을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러나 꿈나래통장을 저축하면서 저축액과 서울시 매칭액이 함께 적립되는 것과 매달 늘어나는 최종잔액을 보며 통장을 유지할 수 있었고 흐뭇한 미소가 절로 나왔습니다. '아~ 저축을 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돈을 모으지 않고 쓰면 수중에 있는 돈이 모두 사라지는데 저축을 하면 쌓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꿈나래통장 사업에 참여하면서 아이들과 추억을 쌓아갔습니다. 우리 형편에는 꿈도 꿀 수 없는 좋은 공연을 관람하고, 재미있는 체험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선물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너무 감동스러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가슴이 진짜 벅차네요." 큰 공연장에서 엄청난 공연을 보고 나오던 막내아이가 제게 한 말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시간이 흐른 후 큰 무대에서 생생하게 보았던 대작을 음악시간에 TV화면으로 보여주며 본 사람은 손들어보라는 선생님의 말씀에 손을 들었는데 3명뿐이었다며 행복하게 이야기하는 아이를 보며 더욱 감사했습니다. 성탄절에는 자조모임에서 가족끼리 케이크를 만들면서 즐거워하는 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인 제가 더 많이 행복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자라 초등학생이던 막내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두 아이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막내가 중3이었을 때 성적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던지 뚜렷한 목표 없이 어디든 갈 수 있는 고등학교에 가겠다고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꿈나래통장을 꺼냈습니다. 내년이면 5년 만기가 되는 통장

에 쌓여있는 금액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과 누나는 공부하기 위해서 모 아둔 돈이 없었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생이 되었고 등록금을 장학금이나 아르 바이트로 해결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 그런데 너는 형과 누나와는 달리 유일하 게 교육자금이 준비되어 있단다. 이 저축의 목적은 하나란다. 오직 너의 공부를 위 해 사용해야 하는 것! 그런데 네가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 저축은 의미가 없 어져서 해약해야 하고 이 금액의 반은 사라져버린단다. 네가 꿈이 생기고 목표가 확 실해질 때 이 통장 안에 담겨있는 돈이 너의 꿈을 위한 날개역할을 해 줄 거야.” 나 의 말에 막내는 수궁을 했고 학교 모토가 ‘나의 꿈을 찾아가는 학교’인 자사고에 입 학했습니다. 입학과 동시에 바로 밝고 사교적인 성격 덕분에 반의 임원이 되었고 조 금씩 공부에도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외에 제게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힘든 생활이 크게 나아지지는 않았지만 금융교육을 통해 경제개념을 익히고 계획적이지 않은 저의 습관을 바 꾸는데 적용하여 가계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꿈을 적은 적금통장도 만들 고 아이들의 이름으로 작은 금액이지만 적금통장을 만들어 월급을 받으면 꿈나래 통장을 최우선으로 저축했습니다. 첫째 아이가 소비자주거학을 공부하면서 평 생 재무설계를 해주겠다고 하루는 진지하게 가정의 수입과 지출을 일일이 열어 보더니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대단하다. 이 작은 수입으로 우리 네 식구가 이 령게 재미있게 사는 거야? 정말 엄마 짱이다!” 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줍 니다. 교육이란 힘으로 서울 전학 온 첫날 다시 대구로 돌아가겠다고 울던 아이 가 지금 이 아이가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서울로 이사 올 때 고1이던 딸아 이는 벌써 혼자 힘으로 3학년이 되어 모든 것을 혼자서 해결해갑니다. 등록금 도 학업보조금도 기타 대학생활을 하는 모든 비용을 제게 단 10원도 의지하지

않고 말입니다. 오히려 제가 딸에게 가끔 구조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옛 어른들 말씀에 ‘돈은 버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다.’는 말의 뜻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뜻을 압니다. 얼마를 번다고 자랑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소비가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저축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절제와 의지로 한다는 것! 지금은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꾸준히 모은다면 시간이 흘러 원하는 금액이 만들어 질 것이라는 것! 그래서 저 는 월급날을 기다리는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앞으로도 힘들지만 묵묵히 책임지며 꾸려갈 것입니다. 세 아이와 꿈나래통장을 바라보며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저축할 것입니다. ‘꿈나래통장’이 막내아이의 소중한 꿈을 이룰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무엇이든 시작하라! 시작만 한다면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하지만 시작조차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꿈은 꾸는 게 아니라 이루는 것이 다.’ 마흔이 훌쩍 넘었지만 저는 제 아이들과 더불어 아직도 많은 꿈들을 향해 이십대의 청춘처럼 오늘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 꿈의 날개 '꿈나래통장'

### | 꿈나래통장 참가자 김수진

3년 전 충청남도 서천군에 있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지 2년이 지날 무렵,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소를 앞당겨 서울로 오게 되었습니다. 줄곧 지방에서 살아온 저에게 서울은 '코리아드림'과 같았습니다. '서울시민'이 되었다는 자부심이 들었고, 엄마 그리고 나의 딸 지성이와 함께 살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그 원동력으로 시설에 있을 때 취득한 간호조무사자격증으로 쉽게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취업 성공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고 6개월 만에 실직하여 생활고와 불안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게다가 넓고 좋은 환경에서 지내다가 별이 들지 않아 24시간 어둡고 눅눅한 10평 채 안 되는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서울 생활이 행복할 줄만 알았던 저의 바람과 달리 이곳에서의 삶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바퀴벌레를 비롯한 온갖 해충들은 우리의 건강을 위협했고, 지성이도 양육환경의 변화로 인한 불안증과 우울증으로 이상행동을 보여 놀이치료와 미술치료를 일 년간 받아야 했습니다.

힘든 나날을 보낼 때 우연히 '꿈나래통장' 사업을 홍보하는 광고를 보고 신청하여 '꿈나래통장'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꿈나래통장'은 악재에서 허우적대는 저를 건져냈습니다. 면접을 볼 때 "저축을 못할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면접관의 질문에 표면적으로 "우선 취업을 목표로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후 쉬지 않고 성실하게 근무하여 납입 하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왜 불입하지 못할까?', '그까짓 7만원을 저축하지 못하겠어?'라는 생각으로 자만했습니다. '7만원'은 통상적으로 사회에서 소액으로 간주되었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통장잔고가 '0원'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 돈이 없을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꿈나래통장을 납입할 수 없음을 깨닫고 행동을 개선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난 오늘, 나와 우리 가족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저에게 저축하는 습관이 몸에 배었습니다. 그동안 일 년을 채 채우지 못하고 통장을 해지했었는데 지금은 2012년 3월 이래 빠짐없이 꼬박꼬박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제 2, 3의 통장들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한 통장은 만기를 채워 적금을 타는 성공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때의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뿌듯했고, 나의 꿈, 전세금 마련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금융교육을 빼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가사와 육아를 병행하는 한부모인 저에게는 일 년에 한 번 있는 교육도 이수하기 쉽지 않은데 지금은 없는 시간을 내서라도 금융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융교육은 실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전에 소액으로 채무자가 되어 신용불량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소득보다 지출이 많았기에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충동구매로 인한 과소비는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 습관 중 하나였는데, 금융교육을 통해 재무상담사를 만나면서 지출이 통제되기 시작했습니다. 가계부를 쓰면서 소비약점을 진단해 주셨고, 육아 스트레스로 힘들었던 저에게 법률스님의 '엄마수업'을 읽어 볼 것을 권장해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상담사의 많은 조언으로 우리가족의 경제사정이 한층 밝아졌습니다.

이 달에는 사례관리기관 회원복지관 사회복지사님의 연계로 가족사진을 촬영합니다. 가족사진을 촬영할 생각에 두근두근 가슴이 설렙니다. 저희 가족에게 '꿈나래'는 '꿈의 날개'가 되어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5년 후 우리 가족의 청사진을 그려봅니다.



## 소중한 작은 변화들

### | 꿈나래통장 참가자 연체원

안녕하세요. 저는 꿈나래통장 3차 참가자 연체원입니다. 4년 전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해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저희가족에게 꿈나래통장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보니 무엇보다 앞날이 창창한 두 아이의 교육비가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린이집 선생님을 통하여 꿈나래통장을 알게 되었고 감사하게 선정되어 힘들어 하던 저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생활이 여의치 않아서 아이통장에 7만원을 넣어주는 것조차 어려웠지만 생활비를 절약하여 악착스럽게 저축했습니다. 욕심이 많아서 무엇이든지 배우기를 좋아하는 아이에게 학원을 보내줄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없을 때 '예술로희망드림'에 선정되어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지금까지 피아노교실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아노를 배우면서 내성적이던 아이가 몰라보게 활발해지고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저는 아이의 변화를 볼 때마다 그 고마움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 또한 복지관 자조모임에서 여러 어머니들의 자녀양육경험담을 듣고, 팻트교실, 켈트교실, 뜨개교실, 요리교실 등 여러 교육을 통해



PART • 02

개인능력향상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2년 전 집과 가까운 곳에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게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통장사업에 참여하면서 특별히 좋았던 것은 매년 진행되는 금융교육이었습니다. 효과적인 저축방법과 소비하는 방법, 주택청약, 보험 등 기존에 몰랐던 금융지식을 배움으로써 생활방식과 사고방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엄마인 제가 자신감을 찾으면서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심어줄 수 있었고,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서울복지재단 꿈나래통장 덕분입니다. 며칠 전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우수학생으로 선정되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돈을 받게 된 것을 떠나 아이가 바르게 자라 우수한 학생으로 친구들의 본보기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롭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에게 바른 인성교육을 함으로써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훌륭한 사람으로 잘 키우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가정에 큰 도움을 주신 서울복지재단과 회원복지관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세요.



##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준 꿈나래통장

| 꿈나래통장 참가자 황민이

2010년 꿈나래통장을 가입한지 엇그제 같은데 벌써 만기 일 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적금만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5년의 저축기간이 길게 느껴졌었는데 어느새 고지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저축을 하면서 정말 괜찮은 혜택을 누린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한 단면일 뿐 전체가 아니었습니다. 매칭금 외에도 사업 안에 다양한 혜택들이 줄지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저에게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업을 참여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무설계를 받은 것입니다. 처음 권유 받았을 땐 재산이라 할 게 없고,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게 빠듯하여 '재무설계를 왜 받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잘 것 없는 재정을 다 오픈하는 것이 창피했지만 이런 생각을 접고 재무설계를 받자 우리가정의 현금흐름이 조금씩 명확해졌습니다. 재무설계의 가장 핵심은 현재 수입은 당장 늘릴 수 없지만, 지출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래의 지출계획을 세우고 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막연하게 항상 머릿속을 맴돌던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까?’ 라는 생각이 잘못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돈은 얼마를 버느냐 보다는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곧 적은 돈을 벌어도 지출을 통제하면 돈을 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무설계사와 3회 정도 상담하면서 현재 재정상태를 점검하고 미래의 생애주기별 플랜까지 작성해보았습니다. 그 후 저는 통장 쪼개기를 시작하면서 불필요했던 지출을 과감히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보험만 남기고 불필요한 보험 해약하기’, ‘회사에 도시락 싸가기’, ‘외식 줄이기’, ‘배달음식보다는 직접 만들어먹기’ 등을 실천했습니다. 피자나 치킨은 요리솜씨가 없는 저도 인터넷을 보고 한 두 번 따라 해보니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사먹는 음식보다 더 맛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트에서는 공산품만 사고 힘들어도 대부분 재래시장을 이용했습니다. 재래시장을 잘 이용하면 그날 식료품비를 1/3로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조금 비싼 생활물품은 인터넷 중고물품에서 구매하고, 필요 없는 물건은 그냥 버리기보다는 인터넷 경매로 되팔아 적은 돈이지만 다시 거둬들였습니다. 요새는 토요일마다 열리는 동네 벼룩시장을 활용해 아이들의 장난감이며 자질구레한 생활용품을 팔고, 은행수수료와 같은 작은 지출도 쉽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출통장과 비상금통장을 만들고, 아이들의 나이를 계산해 학자금통장도 만들었습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아이들을 위해 들어둔 3년 복리적금이 이 달에 만기됩니다. 목적 없이 은행에 넣었다면 벌써 사용하고 없을 것입니다. 아직은 아이들이 초등학생, 중학생이라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교육비로 큰돈이 들어가지 않지만 미래를 대비해서 조금 더 큰 금액으로 다시 적금을 들 생각입니다.

통장사업 후 월세에서 전세로 이사를 했고, 얼마 전 작은 시골집을 장만했습니다. 아이들을 다 키워 놓고 귀농하는 것이 남편과 저의 소박한 꿈입니다. 이렇

게 재무설계에서 배운 내용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절약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허황된 꿈을 꾸거나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나의 현실을 점검하고, 지출을 통제하여 가족의 미래를 계획하고 생활해 나가다보면 분명 저의 꿈이 실현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꿈나래통장의 혜택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꿈나래통장 사업을 통해 제게 용기를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태경이네 가족의 꿈을 키워요

### | 꿈나래통장 참가자 윤미철

안녕하세요. 저는 광진구 구의동에서 살고 있는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2009년에 꿈나래통장 사업을 알게 되었고, 남편과 저는 잠든 세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간절할 마음으로 꿈나래통장 신청서류를 꼼꼼히 작성했습니다. 면접을 볼 때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떨렸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간절함으로 2009년 9월 꿈나래통장 3차로 가입하게 되었고, 저희가족 모두 무척 기뻐했습니다.

가입당시 막내가 태어난 지 5개월이어서 육아와 함께 남편 일을 도우며 지내던 중 큰 아이 친구 엄마의 소개로 광장복지관 꿈나래통장 '자조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해 멧쩍어하는 저를 꿈나래 담당선생님께서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셨고, 다른 참가자분들도 편하게 해주셔서 어느새 모임에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조모임에서 진행한 미술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다른 분들의 어려운 상황을 알게 되었고, 그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가족처럼 여기며 집안일, 자녀문제, 취업문제 등에 대해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다양한 프로그램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재취업을 위한 자격증 대비 프로그램으로 비즈공예, 냅킨공예, POP, 리본공예, 북아트, 퀵트 등을 배웠고, 풍선아트 2급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내적으로는 부모교육과 직업교육의 일환으로 이미지메이킹을 배우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도 생겼습니다. 그 외에도 자조모임을 통해 나눔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자조모임에서 만든 작품들을 프리마켓을 통해 판매했고, 그 수익금으로 독거어르신에게 따뜻한 내의를 전달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이웃들과 나누며 살 수 있다는 사실에 행복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꿈나래 참가자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들도 지원해주셨습니다. 먼저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저희 아이들이 친구 같은 멘토 선생님들과 즐겁게 수업을 했고, 정서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 '고루고루'라는 어린이 건강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운동과 식단을 관리해주는 건강지킴서비스도 받았습니다. 매일 저축을 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이렇게 많은 격려와 아끼지 않는 관심 속에 희망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문화체험으로는 영화, 연극, 뮤지컬, 농구, 야구 등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체험을 했고, 역사문화체험을 통해 아이들이 우리역사에 대해 지식을 넓히고 관심을 갖게 해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복지재단 '씨앗나눔'을 지원받았습니다. 화가가 꿈인 둘째아이를 학원에 보낼 형편이 되지 않았는데 '씨앗나눔'을 통해 11개월 동안 학원비를 지원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술교육 후 둘째아이는 교내상을 받았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꿈을 계획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저에게 뿌듯함을 안겨주었습니다.



꿈나래통장을 알고 참여하면서 저희 가족 모두가 행복했고 웃으며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내년이면 큰 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할 하게 되는데 꿈나래통장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열심히 생활하면서 취업을 통해 아이엄마뿐 아니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를 잡을 계획입니다. 앞으로 더욱 아이들과 건강하고 즐겁게 지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쁨을 선물해 준 꿈나래통장

| 꿈나래통장 참가자 이명옥

얼마 전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초록의 아름다리나무가 우거진 숲 속.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바닷가. 생각만 해도 흐뭇한 미소가 지어지는 아이들의 어릴 적 사진들. 그 중에서도 나를 기쁘게 하는 것 중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꿈나래통장입니다. 꿈나래통장을 시작하고 매월 7만원을 저축하는 기쁨과 꿈나래통장을 통해 받은 도움이 제 생활을 희망의 끈으로 연결시켜주었습니다.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직장 그만두기를 반복하던 남편과의 불화는 끝이 없었고 태교가 엉망이라서 그랬을까 청천병력과 같은 큰 아이의 장애진단에 삶의 끈을 놓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엄마라 강해야했기에 조기교육이든 심리치료를든 매달리며 어디든 아이를 데리고 뛰어다녔습니다. 이런 내 모습이 안타까웠는지 주위사람들의 둘째를 가져보라고 권유했고, 남편에게 다짐 또 다짐을 받고 둘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둘째아이가 태어났음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남편은 급기야 기출을 했습니다. 전세금을 올려주지 못해 쫓겨나게 될 상황에서 불행 중 다행



으로 영구임대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투명한 미래에 확신이 없어서 늘 우울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용기를 필요로 할 때 우연히 아파트 게시판에 붙여진 꿈나래통장 신청공고를 보고 신청하면서 꿈나래통장 참가자가 되었습니다. 꿈나래 사업을 시작하면서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렸고 웃음을 잃고 살던 제가 아이들에게 밝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엄마의 웃는 모습에 껴안아주며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작은 아들에게 미안하고 또 미안했습니다. 마음을 바꾸자 희망의 끈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금융교육도 열심히 참석했고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재무상담도 받으면서 현명한 소비패턴을 알고 실천하면서 작은 목돈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한 푼의 이자라도 더 받기 위해 동양종금에 맡겼다가 채권을 권유받고, 혹하는 마음에 매입했지만 불안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재무상담사에게 문의하자 위험한 투자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조언해주셔서 바로 취소했는데, 놀랍게도 얼마 후 동양종금이 부도가 나서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꿈나래통장이 제게 가져다준 행운입니다.

꿈나래통장 사업의 '객석나눔'을 신청하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던 때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들과 손잡고 설레며 뮤지컬 관람을 하던 때도 얼마나 행복하던지..... 평소 책임기를 좋아하고 글을 잘 쓰는 아들이 복지관을 통해서 재능장학금을 받아서 읽고 싶어 하던 책들을 갖게 되었을 때도 매우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아이들 방 의자에 가만히 앉아서 가지런히 꽂혀있는 책들 중 우리 아들이 가장 아끼는 책 한권을 펼치면 작은 글씨 속에 우리가 지내온 많은 추억들이 빼곡히 적혀있습니다. 통장참가자들과 함께한 송암천문대에서 맛있는 저녁을 먹고 아들과 나란히 손잡고 의자에 누워 별자리를 보며 꿈을 헤아려보았던 날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얼마 전, 아들의 담임선생님과 상담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정말 잘 키우셨어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귀에 생생합니다. 꿈나래통장이 아니었으면 이 기쁨을 어떻게 맛볼 수가 있었을까요. 웃는 모습이 천사 같은 큰 아들과 그런 형을 끄적이 아껴주는 작은 아들이 있기에 또 든든한 지원자 꿈나래통장이 있기에 오늘도 내일을 향해 열심히 달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 만남과 기억을 소중히 여기는 꿈나래통장

### | 꿈나래통장 참가자 손혜선

“엄마 저도 창림이처럼 아파트에서 살면 안돼요? 우리 집은 학교에서 너무 멀고 또 가방도 너무 무거워요.” 초등학교에 입학한 큰 아이의 투정이었습니다.

부산에 살던 저는 결혼과 동시에 서울로 왔습니다. 큰 아이가 8개월 되던 해에 갑작스럽게 남편이 실직하여 빚을 지고 조그마한 책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이의 임신과 출산 그리고 경기의 불황으로 인해 보증금을 다 잃어버린 후에야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제게 남은 건 처음 시작할 때 얻은 빚과 4살, 8개월이 된 두 아이 뿐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건 남편이 일용직으로 일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일을 따라 이사 온 구로구는 조금은 낯선 곳이었습니다. 저는 큰 아이, 작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구청에서 공공근로를 했습니다. 공공근로에서 얻은 수입으로 조금이나마 빚을 갚으면서 그나마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2009년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참가자 모집공고'를 보고 처음에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정부에서 하는 일이고, 서울시에서 하는 일이니 나쁜 일은

아닐 거야. 한번 해보자. 빚만 있는 내가 아이들에게 가난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물려줄 수 있겠구나'하는 꿈과 희망을 가졌습니다. 아이가 대학을 가고자 할 때 다른 건 못해줘도 최소한 대학교 등록금은 해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머니가 빈 제게 통장을 쉽게 해지 할 수 없다는 메리트와 더불어 아줌마들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1+1의 기회이기에 더욱 놓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희망플러스통장과 꿈나래통장 중 어떤 통장을 선택해야 할지를 고민하느라 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두 통장 모두 교육비로 사용할 수 있었기에 두 통장을 비교하다가 제가 희망플러스통장 참여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걸 발견하고 좌절했습니다. 계속적인 근로자라는 항목에서 저는 3개월씩 단기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꿈을 위한 투자인 꿈나래통장을 선택하자. 고고~~~' 그렇게 신청한 꿈나래통장에 운이 따라주어 1차에 붙었습니다.

통장을 가입한 후 서울 전역에 많은 꿈나래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큰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꿈나래 친구들의 힘, 즉 소식의 힘으로 꿈꾸던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어느새 올 가을엔 2009년 2차로 꿈나래통장에 가입한 친구들이 만기하게 됩니다. 저는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그 친구들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며 꿈과 희망을 키우려고 합니다. 꿈나래통장이라는 좋은 기회를 통해 좋은 만남을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모진세상에서 세 아이 지킨 통장

### | 꿈나래통장 참가자 정경윤

환한 빛이 싫었습니다. 하루 온종일 방 밖을 나가기도 싫었고, 깊은 잠이 들기만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급기야는 11층 창문 아래를 우두커니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부모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25년을 살아왔는데, 잘못된 결혼과 세 번의 유산은 저를 굉장히 지치게 했습니다. 가까스로 세 명의 귀한 생명을 얻었지만 남편의 외도와 언어적·육체적 폭력, 가정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한 생활고는 너무나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어린 세 아이들을 방치한 남편과 이혼한 후 부모님을 뒷전으로 생을 마감하려는 저의 마음을 되돌린 건 그때 당시 여섯 살이던 막내딸이었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지도 않고 하루 종일 방안에서 잠만 자는 저를 위해 성모상을 앞에 놓고 조그맣게 꿇어앉은 채 흐느끼며 “우리 엄마를 살려주세요. 엄마가 빨리 낫게 도와주세요. 이제부터 엄마 말 더 잘 들을게요. 제가 엄마를 도와줄게요.” 하며 울먹이는 딸아이의 눈물이 그간 힘들고 지친 저의 마음을 어루만져주었습니다. 힘들게 낳은 딸을 두고 모진생각을 한 어미로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어둡고 긴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모를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래 한번 걸어 가보자’하는 마음으로 가족들과 친구들의 도움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았고, 더디지만 한 발 한 발 세상을 향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 정말 천금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를 다시 살게 한 막내딸을 위한 ‘꿈나래통장’에 가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예술로희망드림 ‘씨앗나눔’에도 선정되어 원하던 미술학원에서 1년간 수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때 배운 실력으로 6학년 때에는 선화예술재단이 개최한 미술대회에서 동상을 받는 기쁨도 누렸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이웃 서울디딤돌’사업을 통해 막내는 지금까지 수학교육원을 다닐 수 있었고 성격도 우수한 편입니다. 수서명화복지관에서는 아름다운 가게에서 옷을 사 입는 우리가족에게 기부한 옷을 주기도 했고, 문화생활이 부족한 세 아이들에게 음악회 티켓도 주셨습니다. 많은 혜택을 받았지만 무엇보다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무척 감사드립니다.

해마다 받는 금융교육은 아무것도 없는 우리 형편에 무슨 필요가 있을까 싶었지만,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좀 더 경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혼할 당시 어리지만 했던 세 아이들은 이제 어엿한 고3, 고2, 중2로 성장했습니다. 그동안 모진 세상에서 곳곳이 세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꿈나래통장의 많은 도움을 발판삼아 앞으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입니다.

꺼져가는 촛불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큰 힘이 돼 주신 서울시 꿈나래통장 관계자분들과 수서명화복지관 사회복지사분들께 세 아이와 함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재현이의 어깨에 꿈나래를 달고!

### | 꿈나래통장 참가자 황미자

지금으로부터 5년 전 2009년 8월, 저는 어느 때와 다름없이 한 달에 한번 발행 되는 광진구 소식지 '아차산 메아리'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꿈나래통장'이라는 글귀가 눈에 번쩍 띄었습니다. 서울시에서 1:1 매칭으로 저금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준비해서 동사무소에 제출했고 꿈나래통장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들 재현이는 초등학교 4학년 이었고, 재현이 형과 저 이렇게 세 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꿈나래통장 저축기간을 선택할 때, 우리 아이의 적지 않은 나이와 7년 동안 서울에서 살 수 있을까 하는 우려로 5년을 신청했습니다. 그쯤이면 우리 재현이가 중학교 3학년이 되니까 저축한 돈을 대학등록금으로 쓰려고 생각했습니다. 한부모 수급자로서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은커녕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에서 아이에게 물려줄 것은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공부를 시키기 위해 대학은 꼭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 한 달에 한번 25일이면 7만원을 저금하기 시

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25일이 되기 전에 저축하는 날을 잊지 않도록 연락해 주셨습니다. 통장에 차곡차곡 돈이 쌓일 때마다 재현이의 앞날에 희망이 쌓이는 것 같아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가 꿈나래통장에 가입하지 못해서 7만원씩 저금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 돈은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차곡차곡 쌓이는 저축액을 보며 정말 저축의 힘이 크다는 것을 새삼 느껴봅니다.

일 년에 한 번씩 받는 금융교육도 저에게는 어디서도 받지 못했던 유익한 교육이었고 살아가는데 무척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형편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간은 왜 이리 빨리 지나가는지 저축을 시작한지가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5년이란 세월이 훌쩍 지나고 만기가 되었습니다. 세월의 빠름을 느끼며 이럴 줄 알았으면 7년으로 할 것을..... 나는 복지관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문의했지만 불가하다는 말을 듣고 너무도 아쉬웠습니다.

저는 9월에 5년 만기가 되더라도 앞으로 계속 지금처럼 7만원씩 저축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매칭해주는 금액이 없어도 말입니다. 재현이가 지금 중학교 3학년이니까 3년을 더 저금을 하면 대학등록금에 무척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5년 전 꿈나래통장이 있는지 모르고 살아왔다면 지금의 이 행복과 미래의 대한 희망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이를 통해 항상 정보나 뉴스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야 한다고 느낍니다.

수기를 마치며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몸도 아프고 돈도 없는 저와 우리 가족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시 파이팅! 꿈나래통장 파이팅! 우리아들 재현이 파이팅!



## 가족애를 되찾아 준 꿈나래통장

### | 꿈나래통장 참가자 김태완

2009년 꿈나래 통장을 가입할 당시 최저생계비정도의 적은 급여로 생활하면서 매월 고정적으로 꿈나래통장에 저축할 생각을 하니 까마득했습니다. 또 7년이라는 긴 세월을 장기적으로 저축할 수 있을지 걱정되었습니다. 매월 대출이자와 카드 대금을 결제하고 나면 마이너스 통장은 한도가 다 찼고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꿈도 희망도 찾을 수 없었고 마음에 여유가 없다보니 사소한 일에도 부부싸움이 많아졌고 아이들도 울며 싸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탈출구가 없는 터널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조모임에서 꿈나래통장 카페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난생처음 가입했습니다. 회원가입을 하고 하루에 몇 번씩 꿈나래통장 카페에 방문하여 통장 가족들의 사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너무나 좋아보였습니다. 카페 글을 보며 저만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저보다 힘들게 살면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사는 분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며 부끄러움을 느꼈고, 제 자신을 다시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상적인 생활

에서 겪는 힘들고 괴로운 일들을 카페에 올리자 카페 가족들은 진심어린 댓글로 위로와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같은 꿈을 가지고 서로 함께할 수 있는 통장가족들이 있다는 사실에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행복했고, 서울 하늘 아래 혼자가 아니라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년에 한번 씩 금융교육을 받으면서 우리집 가계를 다시 점검하고 더 적극적으로 재무상담도 받았습니다. 재무상담사의 조언을 많이 참고하여 대출금을 갚을 방법을 아내와 많이 의논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끙대며 어떻게 갚아야 할지 고민하다가 짜증이 나면 아내와 다투곤 했는데 이제는 가정경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아내가 가정경제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던 오해가 풀렸고 아내도 저처럼 나름대로 고민하며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금융교육 외에도 꿈나래통장에서 개최한 황성 숲체원에서의 1박2일 가족캠프는 정말 오랜만에 가져보는 너무나 소중한 귀한 가족여행이었습니다. 숲에서 산책을 하면서 딸아이와 아내와 속 깊은 이야기를 많이 하다가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집 근처에서 산책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산책을 하며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가족 간의 정이 새록새록 깊어지고 가족애도 생겨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직장에서 일을 끝내고 밤에 아내와 함께 부업을 하면서 대출금을 조금씩 변제하니 희망이 보입니다. 딸아이도 엄마, 아빠가 열심히 사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 열심히 공부합니다. 남들처럼 학원을 보내지 않아도 학교성적이 잘 나오고 친구들과의 교우 관계도 좋습니다. 우리가정의 창가에 햇빛이 들어오는 이 느낌을 계속 누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꿈나래통장사업 참여를 통한 긍정적 변화!

### | 꿈나래통장 참가자 이해운

꿈나래통장사업 참여한 후 얻게 된 긍정적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녀의 미래에 대한 계획이 생겼습니다.

둘째. 금융교육을 통해서 배운 내용을 실천하며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셋째. 아이들과 함께한 소중한 추억이 생겼습니다.

처음 꿈나래통장을 시작할 때는 5년간 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 무리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더 연장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꿈나래와 인연은 2009년 8월경 어린이집 원장님의 권유로 사업에 참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적다면 적은 금액이고 많다면 많은 금액인 5만원을 매달 입금했습니다. 외벌이기에 아이들의 교육비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는데 해가 거듭될수록 한푼 두푼 모으면서 조금씩 계획을 세우며 저축하게 되었습니다. 저축하면서 얻게 된 희망과 용기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믿음을 갖고 꾸준히 저축하는 제 자신을 보며 스스로 대견함도 느꼈습니다.

아울러 금융교육을 통해 생각이 트였고, 모르는 것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 사례로는 통장 쪼개기입니다. 한 통장에서 모든 지출이 이루어지면 어디에 지출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각 용도에 맞게 통장을 쪼갰습니다. 아직 종자돈은 모으지는 못했지만 어디에 지출을 했는지, 어떤 지출을 줄여야 하는지 한 눈에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소한 금융, 보험 등도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해주어 더욱 접근하기 쉬웠습니다. 한 발짝, 한 계단 오른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작년부터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이동산도 가고, 뮤지컬도 관람하면서 가족과 더없이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아이들은 지금도 그 때를 생생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기를 바랍니다. 또 어머니를 위한 프로그램도 재미있게 참여하면서 힐링을 하고, 정말 하고 싶었던 공예작품도 만들어 볼 수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더 많이 참여하지 못 했던 점이 아쉽습니다.

이렇게 꿈나래와 함께 5년을 동고동락했습니다.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고 큰 계획도 생겼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방향을 정하고 신중히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힘든 살림에 마음의 여유와 행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꿈나래통장을 회상하며

### | 꿈나래통장 참가자 조민식

비운 뒤 화창한 날씨에 기분 좋아집니다. 꿈나래통장과 함께 했던 5년의 시간이 아련히 떠오릅니다. 23살. 조금 이른 나이에 가정을 꾸리고 결혼과 동시에 큰 아이를 갖고 3살 터울로 작은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육아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어서 남편이 버는 돈으로 4식구가 정말 빠듯하게 살아왔습니다. 돈이 없는데 먹고 싶은 것은 왜 이렇게 많은지. 또 하고 싶고 보고 싶은 것은 왜 이렇게 많은지……. 자식과 함께 어울려 질긴 인연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네 삶인 듯합니다. 하루 먹고 살기 바빠서 '돈은 애들 학교 가기 전에 벌어야 한다.'는 어른들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작은아이가 3살이 되었을 때 남편을 도와 사회생활을 시작했지만 둘이 벌어도 가정형편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지출이 더욱 늘어나 적금은 들 생각도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살면 언젠가는 여유롭게 살 수 있을까?' 가끔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의 담임선생님으로부터 꿈나래통장을 신청해보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얼떨떨한 마음으로 동사무소에 접수했는데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가 저희 가족에게 주어지다니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 셋을 키우면서 쉬지 않고 열심히 벌어도 생활이 빠듯한데 매달 7만원의 적금을 넣을 수 있을까 걱정도 했습니다. 통장사업의 필수교육인 금융교육은 시간대가 다양해서 편한 시간에 받았고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빛도 재산이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인생그래프 그리기. 국민연금 강의' 등 필요한 내용들을 듣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앞으로 나의 50대, 60대 인생은 어떻게 바뀔까? 걱정 없이 살아야 하는데……. 국민연금은 안전할까? 고갈되어 간다고 하는데' 강의를 들으며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생활에 쫓기다 보면 가끔씩 입금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지출을 줄여서라도 불입해야겠다고 각오를 해봅니다. 그리고 강의내용에 따라 공과금 통장, 급여통장, 비상금 통장, 적금통장 등으로 통장을 여러 개로 나누자 돈이 마구 불어나 금방 부자가 될 것 같은 느낌으로 조금이라도 여유가 찾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만기를 앞두고 꿈나래통장을 보자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길게만 느껴졌던 5년이라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니다. 적금을 타면 아이가 꼭 배우고 싶어 하던 유도학원을 등록시키려고 합니다. "엄마 다음 달부터 유도학원 다녀도 되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의 말에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동안 한정된 돈 때문에 보내지 못했는데 통장이 만기되면 꾸준히 배우게 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희망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만을 바랍니다.

아직 꿈나래통장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조건이 되는 분들은 신청하여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꿈나래통장과 같은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신청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꿈나래통장 파이팅!



## 산타클로스가 되어준 꿈나래통장

### | 꿈나래통장 참가자 조문빈

꿈 : 꿈과 희망이란 두 글자로

나 : 나에게 다가와

래 : 내일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준 산타클로스

꿈과 사랑으로 한 가정을 이루어 자녀와 함께 더 큰 꿈을 꾸며 재미난 가정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사업부도로 파산하게 되면서 저는 무엇도 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정말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정말 이혼이라도 해야 할까'하는 생각에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의 어려운 생활을 아는 지인이 '꿈나래통장'을 소개해주셨고, 그것은 제게 큰 행복을 주었습니다.

'이웃사촌'이라는 것을 실천하도록 힘쓰시는 복지관의 고마운 분들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가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꿈나래통장'이란 끈을 이어주십니다. 저는 매달 7만원 을 지금까지 한 달도 쉬지 않고 저축했는데, 힘들 때마다 지지해주신 덕에 벌써 큰 아 이가 아홉 살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표현할 길은 없지만

따뜻한 마음을 담아 글을 적어봅니다. 고마웠던 순간들이 많이 있지만 '자조모임'을 통 해 느낀 감사함과 따뜻함은 꼭 전하고 싶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은 언니, 어리 면 동생. 비슷한 나이는 친구가 되어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하면서 '이웃사촌'이 됐을 을 실감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셋째를 임신해서 배가 불러오고 허리와 다리가 아파 외출조차 힘든 상황에서도 자조모임이 기다려지곤 했습니다. 자조모임 식구들의 환한 모습과 따스한 격려에 미소조차 없던 제가 모임에서는 깔깔대고 웃을 수 있었습니다. 모임 후 헤어질 시간이 되면 아쉬움이 남을 정도로 정말 고마운 식구들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어려운 사람들도 꿈 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복지관의 고마운 분들의 덕이라는 것을 알고 있 습니다. 마음 뜨겁게 감사드립니다.

또 어린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씨앗나눔'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음에 정말 놀랐습니다. 꿈나래통장의 끈도 모자라 '씨앗나눔'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뒷받침 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밝은 내일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라 믿습니다. 아쉽게도 이번 '씨 앗나눔'에 선정되지 못했지만 저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가 되었다고 생각 하니 편안한 마음입니다.

내년이면 둘째가 1학년이 됩니다. 그동안 자조모임 식구 자녀들이 작아서 입지 못 하는 옷을 챙겨주셔서 걱정을 덜었습니다. 또 올해 2학년인 큰아이가 '고루고루'라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순하고 울기 잘하던 아이가 말을 푹푹하게 잘하는 아이로 바뀌었습니다. 그림만 잘 그리던 아이가 이제는 공부도 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일을 바라보며 밝은 미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저의 소임은 세 아이 들을 건강하고 정직하고 푹푹한 아이로 성장시켜 사회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



합니다. 제가 도움을 받은 것처럼 더 어려운 이웃을 만나게 되면 세상이 어려운 것만은 아님을 알려주고, 도우며 살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줄 것입니다. 어둡게 정체되어있던 저에게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 꿈나래통장을 통해 성장하다

| 꿈나래통장 참가자 **조미선**

2009년 1차 꿈나래통장 참가자 조미선입니다. 혼자의 힘으로 아이를 키우기 위해 꿈나래통장을 가입하여 지금까지 꾸준히 저축하고 있습니다. 가구 수와 여러 가지 변화된 상황으로 인해 중간에 탈락될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통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꿈나래통장 저축은 아이의 교육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학비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었습니다.

2013년 1월에 재혼을 하고 딸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새 아빠와 성이 같도록 성본변경과 입양신고를 했습니다. 2013년 8월에 동생을 출산하여 지금은 단란한 4인 가정이 되었습니다. 참가할 당시보다 생활여건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중입니다. 큰 변화로 인해 아이가 상처를 받을까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아이가 잘 적응해주었고 배우자도 차별 없이 아이들을 잘 챙겨 주며 놀아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한결 든든하고 마음이 놓입니다.

통장사업을 시작한 후 이세진 강사님의 금융강의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빛이 줄거나 예금이 늘어난 건 아니지만 작게나마 생활비에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절전하는 법을 배우고 도시가스나 전기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고지서를 체크하게 되었습니다. 상환해야 할 빚이 많고 월급이 일정치 않아서 가계부를 쓰지 않았는데 지금은 단돈 10원도 가계부에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계부를 쓰면 어디에 얼마를 사용했는지 바로 알 수 있고, 불필요하게 사용한 내역도 한 눈에 볼 수 있어서 이전보다 소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기적인 수입으로 최대한 절감하며 살 수 있게 되었고 재무컨설팅도 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이를 혼자 키울 때는 일만으로도 지치고, 힘든 부분이 많아서 나쁜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엄마인 제가 아이에게 영향이 미칠까봐 티내지 않고 속으로 삼키다 속병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에게 배우고,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서 아이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아이들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고, 사랑을 주고받으며 가족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현재 꿈나래통장에 4년째 참가하는 중이고 앞으로 남은 3년을 잘 유지해서 아이에게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남은기간도 지금까지처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만들어주신 서울시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꾸준히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반갑다, 친구야.

| 꿈나래통장 참가자 차유미

“애, 아가야. 입학할 때 신이라고 오늘 길에서 하나 샀다.”

“어머, 어머니. 무거우신데 선물까지 사오셨어요?”

시어머니께서 오랜만에 우리집에 오셨습니다.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한다고 여러 가지 선물을 가득 사들고 오셨습니다. 딸아이는 입이 헤벌쭙 벌어져서 할머니 곁을 떠날 줄 모릅니다. 없는 형편에 한푼 두푼 어렵사리 모은 돈을 손녀선물 사는데 다 쓰시는 것을 보니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아이가 학교에 들어간다는 말을 듣고 지인들이 이것저것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바빠서 주변을 잘 챙기지 못했는데 멀리서 챙겨주시는 분들께 감사했습니다. 아직 초등학생인데 생각보다 준비할 것이 많았습니다. 옷이며 가방이며, 신발, 학용품이 쌓인 것을 보니 딸의 입학이 실감났습니다. 그런데 딸이 새 학년이 되자 쓰지 못한 물건들이 생겼고 버리기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동딸인데다 주변에 줄 만한 아이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집에서 한 번 신은 운동화며, 아직도 신상 느낌이 나는 옷들이 많아서 어떻게 할지 곰곰이 생각하다가 꿈나

래통장 식구들의 온라인 카페가 떠올랐습니다. 과연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 싶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쩌나 고민하다가 그동안 쓰지 못한 물건과 아직 쓸 만한 물건의 사진을 찍어 아나바다 코너에 올렸더니 서울 곳곳에 사시는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주변 잘 쓰겠다는 말도 있고, 아름다운 나눔에 감사한다는 글도 있고, 다음 기회라도 받고 싶다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나에게 처치곤란인 물건을 나누는 것뿐인데 이런 반응에 감사하면서도 쑥스러웠습니다. 그 중 나와 같은 양친구에 사는 한 엄마가 놀랍게도 바로 우리집 옆 빌라에 사는 분이었습니다. 언년생을 포함해 아이 셋을 키우는 분이었는데, 저와 나이도 비슷했습니다. 서로 가까이 사니 아이들을 데리고 물건을 받으러 오겠다는 말에 선뜻 승낙했습니다. 이렇게 영민 엄마와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하나라서 외롭지 않을까 늘 신경 쓰며 살아왔습니다. 아이에게 변변히 물려줄 게 없으니 의지할 형제자매가 있으면 좋겠다 싶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사정에 늘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집에 자주 방문하려고 노력했지만, 친척들은 멀리 살고 동창들도 미혼이거나 갓난아기를 키우는 처지라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민 엄마와 가까이 지내면서 딸아이가 한두 살 어린 동생, 언니에게 자매애를 느끼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양보하고 나눌 필요가 없던 외동딸이 처음에는 어색해하더니 이제는 지혜롭게 물건을 나누고 양보하며 다른 사람과 음식도 나눠먹게 되었습니다.

영민엄마는 나와 취미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지만 신기하게 말이 잘 통했습니다. 10년차 주부로서 우리는 살림노하우를 공유하고 가끔은 함께 나들이하며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속담에 '세 낚 주고 집을 사고, 천 냥 주고 이웃을 산다.'라는 말처럼 천 냥보다 값진 이웃, 좋은 친구를 얻어 정말 기쁩니다. 아이들이 커

서 혹시 이사를 가더라도 그동안 함께 가꾼 추억들, 영민엄마와의 인연은 오래도록 지속될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돈을 모은다는 생각만 했는데 좋은 이웃과 함께하면서 이전보다 성숙해 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만남이 가능했던 것도 자조 모임과 꿈나래통장 카페를 통한 교류 덕분이었습니다.

통장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받을 돈에 마음 부풀기보다는 통장사업을 통해 받은 기쁨을 다른 사람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은 미흡하지만 도움을 받는 처지라는 생각에 그치지 않고 어렵고 힘들어도 서로 나눌 수 있는 이웃이 있음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 행복을 알려준 값진 보석

### | 꿈나래통장 참가자 성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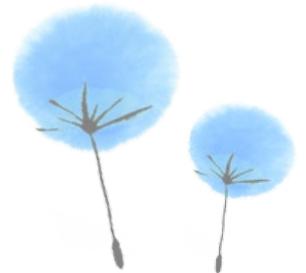
안녕하세요.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하여 고민하던 차에 꿈나래통장을 알게 되었고, 아이의 꿈을 키워준 꿈나래통장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아이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꿈나래통장 사업에 참여하면서 아이에게 정말 많은 즐거움과 희망을 준 것 같아 참 기쁩니다. 저는 가정 생활이 힘들어도 꿈나래통장에 제일 먼저 입금했고, 쌓이는 저축액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아이가 1학년이 되었을 때 피아노를 좋아하는 아이를 위해 '예술로희망드림 씨앗나눔'을 신청했습니다. 세 번째 신청했을 때 선정되었고 더욱 값지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꿈나래통장 덕분에 씨앗나눔도 알 수 있었으니, 꿈나래통장은 한마디로 우리 아이에게 꿈을 심어주는 통장입니다. 4년 동안 피아노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아이의 장래희망은 피아니스트가 되었고,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청소년 콩쿨대회 피아노부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제겐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아이가 이번 큰 대회에서 상을 타서 그런지 자신감이 넘치고 더불어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꿈나래통장은 우리

아들과 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친구가 되었습니다.

카페를 통해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카페 출석률이 590회가 될 정도로 매일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여러 가지 소중한 정보 얻어 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했습니다. 또한 통장사업을 통해 아들과 여행을 가서 블루베리 체험을 하고 사진도 찍으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꿈나래통장이 저희 가정의 희망 활력소가 되면서 아들은 적극적인 아이로 바뀌었고 이제는 저보다 아이가 꿈나래통장을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복지관에서 진행되는 자조모임을 통해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식구들도 알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즐거운 시간도 보냈습니다.

꿈나래통장을 통해 아이에게 피아노를 가르쳐줄 수 있었고 아이가 꿈을 꿀 기회를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는 매일같이 피아노를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더불어 좋은 추억들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도 꿈나래통장이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아버지 역할을 대신 해온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집은 웃음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아이가 피아노 치는 소리를 들으면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 행복이라는 단어를 알게 해준 꿈나래통장,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늘 희망을 준……. 꿈나래통장 덕에 우리가정은 더 행복해졌습니다. 우리아들과 저에게 '행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절망 끝에서 만난 한 줄기 희망

### | 꿈나래통장 참가자 김미정

‘꿈나래통장’은 우리가족이 절망 끝에서 만난 한 줄기 희망이었습니다. 어느덧 5년의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오는 8월이면 만기가 됩니다. 정말 기쁘고 또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2000년 봄, 남편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가세가 기울고 옆친 데 덮친 격으로 큰 딸이 병에 걸렸습니다. 우리 가족은 점차 웃음을 잃어갔고 그저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다 못해 지옥과도 같아서 죽지못해 살아갔습니다. 아픈 큰 아이를 간호하면서 자연히 둘째와 셋째에게 신경을 써주지 못했고, 특히 막내인 관우는 방치되어졌습니다. 위로 누나 둘이 있는 막내로 태어난 관우는 백 일이 채 되기 전에 병을 얻은 큰 누나의 투병으로 인해 엄마 젖도 많이 못 먹고 사랑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자라는 동안 남들이 흔하게 다니는 학원도 단 한 번 다니지 못했기에 관우를 생각하면 항상 마음이 아렸습니다. 그렇게 관우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던 중 동사무소 사회복지사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적금이 있다고 알려주었고 절망 속에서 희망의 빛이 되어줄 ‘꿈나래통장’을 만났습니다.

세월이 참 유수와 같다더니 우리 관우가 초등학교 4학년일 때 통장을 시작했는데 무럭무럭 자란 우리 관우는 어느덧 중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적금을 타게 되면 우리 관우가 다니고 싶었던 학원도 보내주고, 사고 싶어 하던 것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게 해줄 것입니다. 자녀에게 많은 것을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다 그렇지 않을까합니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힘든 형편에도 매일 납입일을 준수하였고 차곡차곡 불어나는 적금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마음 한 구석에 묵적이 자리 잡고 있던 관우에 대한 미안함도 점차 열어졌습니다.

적금을 붓는 동안 받은 금융교육은 참 알찼습니다. 가계부 쓰기, 적금통장 만들기 등 그동안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경제생활 전반에 탄탄한 지식이 생겼습니다. 특히 보험에 관한 교육은 정말 좋았습니다. 강사님의 쉽고 재미있는 설명과 사례를 든 비교분석은 그간 막연하게 알고 있던 보험에 대한 여러 정보를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금융교육은 우리가족에게 더 필요하고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려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꿈나래통장’사업이 회를 거듭할수록 참여자 규모가 커지고 교육내용면에서도 알차게 꾸려져서 참가자의 한 사람으로 참 기쁩니다. 그동안 통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주신 공릉복지관 서지인복지사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매일 납입일을 챙겨주시고 좋은 교육도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선 현장에서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 덕분에 참여자 분들 모두가 보람찬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위한 좋은 제도가 꼭 유지되기를 기원하며,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 미래의 작은 디딤돌

### | 꿈나래통장 참가자 김동연

거듭되는 유산으로 인해 서른여덟 살에 힘들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아이에게 특별히 목돈이 들어가지 않아서 걱정 없이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라서 초등학교가 되었을 때 막연하게 대학갈 때 필요한 학비를 저축해야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생활이 여의치 않아 저축을 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걱정만 쌓여 가던 중 2009년 어느 날, 꿈나래통장이 소개된 구로구청 소식지를 보았습니다.

밤새 몸을 뒤척이며 선잠을 자다가 아침 9시가 되기도 전에 동사무소에 가서 구비서류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기다린 끝에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서 온가족이 초코파이에 초를 꽂아 축하했습니다. 무사히 7년을 채울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와 함께 말입니다.

당시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어서 7년을 신청했습니다. 혼자서 계산기를 가져다 놓고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꿈나래통장에 7만원씩 7년을 저축하면 588만원이 되고,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을 더하면 1,176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176만원은 대학학비로 부족하였고 중도에 찾을 수도 없어서 꿈나래통장 이외에 추가적으로 적금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율이 높은 게 무엇이지 은행에 문의했더니 주택청약부금이라고 알려주기에 월 3만원을 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꿈나래통장이 만기될 때쯤 아이는 중학교 2학년이 될 것이고, 그 때부터 꿈나래통장에 넣던 7만원을 청약부금에 추가로 저축하면 732만원이 되므로 대학갈 때는 약 2천만원 정도가 마련이 될 것이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계산만 했을 뿐인데도 왜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지 아들에게 대학학비로 저축하는 금액과 기간을 설명해주고 “넌 공부만 잘하면 돼. 학비는 걱정하지 말고”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은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면서 “알았어. 엄마, 공부 열심히 할게요.”라고 대답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꿈을 가지고 꼬박꼬박 저축을 하던 중 2012년 남편이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입원으로 지출이 늘어났고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꿈나래통장은 해약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고민한 끝에 아들을 위해 저축해 둔 청약부금을 해약하러 갔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와야 한다는 말에 집에 돌아와서 하루를 더 고민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해봐도 돈 나올 곳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동사무소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은행에서 주택청약부금을 해약하고 아들 첫 돌때 선물 받은 금반지를 팔아 병원비를 계산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 정육점에 들러서 소고기를 샀습니다. 많은 출혈을 한 남편과 함께 본인도 모르게 적금이 해약된 아들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남편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다음달부터 6만원씩 아들의 주택청약부금을 다시 들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는 게 뭘지 그

6만원이 저축이 되질 않았습니다. 생각만 있을 뿐 현실은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아들이 6학년이 되었던 지난봄 사촌누나에게 한 학기 등록금이 얼마인지 듣더니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내 학비는 잘 저금하고 있죠?”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영겁결에 “응. 잘하고 있어.” 라고 대답을 했지만 걱정이 앞섰습니다. 다음 달에 해야지 하면서 미루기만 했던 지나간 시간들을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올3월 달에 아들의 이름으로 은행에서 주택청약종합통장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결코 늦은 게 아니라고 마음속에 되새기며 절대로 이번에는 깨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지금은 지난번에 찾아 쓴 돈까지 다시 저축해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꿈나래통장은 깰래야 깰 수 없는 적금이라는 생각과 함께 새로 만든 통장은 우리아들의 미래에 조그마한 디딤돌 아니 받침돌이 되어 줄 것이라 믿습니다. 꿈나래통장이 있었기에 더욱 더 저축할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꿈나래통장이 없었다면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걱정하다 또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단언 کن테 저축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벌써 꿈나래통장을 57개월 동안 넣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길게 저축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6학년이 될 때까지 한 번도 학원을 다니지 않고도 공부 잘하는 우리 아들의 꿈이 자라서 커다란 나무가 될 때까지 그리고 사회에 그늘이 되어 지금 받은 모든 것들을 베푸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간절히 바라며 이런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희망플러스 · 꿈나래통장 참가자 수기집



---

서울시복지재단-2014-15

- 발행일 : 2014년 10월
- 발행처 : 서울시복지재단
- 발행인 : 임성규
- 편집인 : 송성숙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52(신문로2가 1-43)
- 전 화 : 02-2011-0400
- 팩 스 : 02-2011-0500
- <http://www.welfare.seoul.kr>

---

※ 이 책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